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대한제국기 조선인의 중국관

- 무술변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채 자 문

# 대한제국기 조선인의 중국관

- 무술변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형중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채자문

채자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대한제국기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이 무술변법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청일전쟁 후에 조선인들이 행한 무술변법에 대한 평가 및 대청(對淸) 인식을 고찰하려 한다.

사료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국의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무술변법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을 고찰하는 것은 무술변법을 검토하는 새로운 연구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연구들은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미국 등의 열강 측의 사료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을 뿐, 열강 외의 기타 나라의 사료를 사용한 것은 드문 상황이다. 동시에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대청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피상적인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인식이 형성된 국내외의 배경, 특정 상황 등과 결합하여 그들의 배후 동기를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무술변법에 대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보도 내용에 착수하여 새로운 연구의 시각을 제시하려고 하고, 나아가 무술변법 보도에서 드러난 대청 인식과 인식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국내의 독립협회 운동과 결부시켜 조선 신문의 발언 동기 등을 고찰하면서, 무술변법의 보도 내용에 대해 조선 신문을 독일 신문, 일본 신문 비교함을 통해 조선 신문 보도의 특수성을 찾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조선의 신문은 “신문의 창간 단체[독립협회]-국가와 민족[조선]-지역[동아시아]” 삼자의 이익을 바탕으로 보도했고, 청조에 대한 나름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조선인에게 전달하고자 하였고 이 이미지가 그들의 대청 인식, 심지어 조선의 대청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고 확인할 수 있다.

청일전쟁 후 독립신문은 조선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독립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조를 폄하하는 한편, 외침을 당하는 동양의 입장에서 청국민의 저항을 비중 있게 서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집단-국가와 민족-지역” 삼자의 이익과 청조 개혁파의 정치 주장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독립신문이 무술변법을 관찰하는 기반이 되었다. 무술변법 시기에 도 독립신문은 변법의 조치·결과를 예시로 독립협회 본연의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무술변법을 자신들의 정치 활동을 위해 부여된 명분으로 삼았고, 무술변법과 독립협회 운동 실패 후에도 무술변법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평가를 부여함으로써 독립협회 운동을 회고하고 청조 정변을 사례로 본국 정부를 여전히 비판하였다. 황성신문은 초창기에 독립협회운동과 호응하여 청조를 폄하하며 조선 정부를 비판했지만 조선과의 평등 외교에 관한 변법 조치의 시행을 목도한 후에는 위 비판적 논조와는 분리된, 독립적 논술이 미래 조·청 관계의 구상에서도 보였고, 또한 실학의 정신을 발휘하여 청조의 실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이 무술전병 전후 한때에 광서제의 생사 폐립, 열강의 청조 내정 간섭 등에 관한 소문을 대량 기재했다. 본 논문은 소문에 대한 노엘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선 신문이 소문을 기재한 것은 소문이 예시할 위험을 알아챘기 때문이리라고 추측한다. 즉 열강은 광서제 폐립을 핑계로 청조 내정을 간섭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방식대로 조선 국내의 독립협회 정치 운동을 틈타 조선의 내정도 간섭할 것이었다. 언론지를 통해 퍼진 소문은 사람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주었다. 그러나 청조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조선의 신문은 무술변법에 대한 회고에 초점을 두어, 청조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비판하는 한편 청조가 무술변법과 같은 개혁을 전개하여 근대화에 이룩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무술변법을 관찰하는 가운데 청조에서의 본국 권익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 청조 내정을 간섭하려는 자세로 임하는 독일과 일본의 신문에 비해, 조선 신문은 창간 단체의 정치적 이익을 바탕으로 하면서 조선과 동아시아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립협회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독립신문에서 보인 “완고당을 폄하하며 개혁파를 칭찬한다”는 입장과 서태후의 실적에 대해 황성신문이 내린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및 무술변법에 대해 조선 신문계가 표현한 호감, 동정 등 감정선을 통해 당시 조선인의 대청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주요어** : 무술변법, 무술정변, 독립신문, 황성신문, 중국관

**학 번** : 2018-20287

# 목 차

서론 .....	1
Ⅰ. 무술변법 전 독립신문의 대청 관찰 .....	11
1. 청일전쟁 후의 형세와 독립신문 배후의 이익 .....	11
2. 무술변법에 대한 독립협회의 인식 기초 .....	19
Ⅱ.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변법 관찰과 대청 인식 .....	23
1. 독립협회 운동과 독립신문의 변법 보도 .....	23
2. 황성신문의 변법 관찰 및 인식 기초 .....	33
Ⅲ. 무술변법에 대한 조선 신문의 인식과 특성 .....	43
1. 무술변법 보도의 전반적 특성 .....	43
2. 독일, 일본 신문과의 비교에서 본 조선 신문의 특수성 .....	55
결론 .....	64
참 고 문 헌 .....	69
中文摘要 .....	76

## 서론

청말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무술변법은 청일전쟁 패배 후 야기된 국내·외적 위기로부터 출발하였다. 청조 개혁파는 조약 체결을 반대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공거상서(公車上書) 운동 및 여러 단체와 매체를 통해 유신사상을 전파하였고, 광서제는 명정국시조(明定國是詔)를 반포하여 청조에 전면적 변혁을 진행하였다. 일련의 개혁 조치는 서태후의 정변으로 실패하였고, 개혁파가 체포되고, 광서제가 구금되면서 좌절되었다.<sup>1)</sup>

무술변법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무술정변 직후<sup>2)</sup>부터 계속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중국의 사료만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무술변법 100주년(1998) 이래에 사료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실증적 조사에 점차 치중되고 있다.<sup>3)</sup> 특히 외국의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무술변법에 대한 외국의 인식을 고찰하는 것은 무술변법을 검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는 연구들은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미국 등의 외국 측의 사료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고, 駐북경외교관의 일기, 당안과 외국 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사료 등을 다루고 있다. 사료 이용의 측면에서 당시 외국 신문 매체는 무술변법을 가감 없이 보도하며 사회 각 계층의 동향, 사건에 대한 관점, 소문의 전파 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기록하여 공식 문서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료를 통해 연구자들은 무술변법 당시 외국 신문계의 동향과 인식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하며 새로운 시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우선 선행연구들에서 무술변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겠다. 먼저

---

1) 무술변법은 그 전후 103일(1898.6.11-1898.9.21)을 유지했기 때문에 백일유신(Hundred Days' Reform)이라고도 불린다.

2) 孔祥吉, 「建國以來戊戌變法史研究述評」, 『近代史研究』 4, 1985, p.162.

3) 馬忠文, 「20世紀90年代以來的戊戌變法史研究述評」, 『晚清政治史研究的檢討: 問題與前瞻』,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p.281.

모해건(茅海建)은 무술변법 당시 일본 정부가 친일적 청조 실력자와 관계를 맺고자 힘쓰며 주북경일본 공사가 개인적인 동정을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4)</sup> 공상길(孔祥吉)은 일본 정부가 개혁파를 외면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강(유위), 양(계초)을 보호하기 때문에 장지동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중국 내에 이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판단했다”<sup>5)</sup>라고 밝혔다. 구도(邱濤)도 무술변법 당시 동문회(同門會), 동아회(東亞會)가 세력의 확장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여 일청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sup>6)</sup>

펠퍼(Felber)는 주북경독일공사인 헤이킹(Heyking)의 보고에 근거하여 “독일이 청국의 개량 활동을 관찰하면서 독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였다”<sup>7)</sup>는 독일 정부의 입장을 지적하였다. 이해용(李海蓉)은 주북경영국공사인 맥도날드(Claude Maxwell MacDonald)의 전보를 통해 변법에 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이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초기에 강, 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청조에서의 영국의 이익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친러 경향의 서태후파가 재등장하여 러시아의 독점을 막기 위해 강, 량을 축출하고, 러시아와 상호 간에 이익을 인정하며 중국에서의 영국의 이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sup>8)</sup> 러시아의 경우 다비드 스킴멜펜닝크(David Schimmelpenninck)는 당시 러시아 대신과 참모부의 보고를 검토하여 청조 변법을 위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무술변법에 대한 경계 자세를 지적하였다.<sup>9)</sup> 미국의 경향에 대해서 최지해(崔志海)는 당시 주북경미국공사가 일종의 ‘국가 이성’이란 관점을 취해 청조 변법과 정변

4) 茅海建 鄭匡民, 「日本政府對於戊戌變法的觀察與反應」, 『歷史研究』3, 2004, p.63.

5) 孔祥吉 村田雄二郎, 『罕爲人知的中日結盟及其他——晚清中日關係史新探』, 巴蜀書社, 2004, p.107.

6) 邱濤 鄭匡民, 「戊戌政變前的日中結盟活動」, 『近代史研究』1, 2010, pp.40-41.

7) Felber 著 李士勛 譯, 「德國人對戊戌變法的一些較早的反映和認識」, 錢伯城 李國章 編, 『中華文史論叢』58, 上海古籍出版社, 1999, p.118.

8) 李海蓉, 「英國政府對康有爲流亡態度之考釋——兼論保皇會的沒落」, 『史林』1, 2019, pp.94-100.

9)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 *Russia's ambivalent response to the Boxers, Cahiers du Monde russe* v. 41/1, 2000, p.60.

에 관망세를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sup>10)</sup>

또한 각국 사회, 엘리트의 관점에서 무술변법 당시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여 가와사키 시잔(川崎紫山)은 1898년 3월에 중국의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고 단언하였다.<sup>11)</sup> 또한 강유위를 비롯한 개혁파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시가 스케고로(志賀祐五郎)도 개혁파가 이상적이고 매우 유치하다는 점을 갈수록 깨닫게 되었고, 이래서는 변법이 무질서로 끝나게 될 뿐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양자의 관찰은 중앙신문(中央新聞)과 만조보(萬朝報)에 실렸는데, 모두 청조 변법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무술정변 이후에 강, 량 등을 후원했던 언론인 구가 가쓰난(陸羯南)은 변법에 혁신적 사상이 없으므로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sup>12)</sup> 나이토 고난(内藤湖南)은 또한 정변 후에 중국 개혁의 앞길이 어둡고 전 사회에서 침체된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sup>13)</sup> 마찬가지로 독일 신문계는 청조가 서구의 문명을 흡수하여 언론을 개방하는 등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일정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변법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sup>14)</sup> 그리고 예상한 변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영입하여 그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무술변법에 대해 청조에서의 권익과 관련이 높은 일·독·러·영·미 등 열강의 정부·외교관·신문·엘리트 등은 대체로 이용·관망·경계·비판 등 자세를 취하며 개별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을지언정, 비관적인 인식을 종시 갖고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익 확대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삼고 변법에는 자신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

10) 崔誌海, 「美國駐華公使對戊戌變法的觀察」, 『史林』 4, 2018, pp.106-107; 113-114.

11) Urs Matthias Zachmann, *China and Japan in the Late Meiji Period China policy and the Japanese discourse on national identity 1895-1904*, Routledge, 2009, p.94.

12) 王明偉, 「陸羯南與戊戌變法」, 『史學集刊』 3, 2008, pp.39-40.

13) 胡天舒, 「內藤湖南中國觀的變與不變」, 『中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3, 2013, p.224.

14) Felber, 앞의 논문(1999), pp.115-117.

강조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실제로 청조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未개화국을 내려다보는 자세로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처럼 외국의 시각을 통해 무술변법을 조망한 작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첫째는 자료의 성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일이다. 청조에서의 자국 권익으로부터 출발한 주북경공사의 외교 문서를 통해 서구가 변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검토하는 것에 비해 개인 일기나 신문 등 사료로 접근하는 방식은 더욱 그 실체에 가까울 것이다. 이미 이를 통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부분이 밝혀져 있어서 연구를 확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시각의 측면에서 당시 각국의 외교관은 공적인 신분에서 벗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므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개인의 저작은 정부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변법에 대한 솔직한 인식과 견해를 다루지만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감에 좌우되기 쉽다. 이보다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진실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신문은 특정 단체, 혹은 더 나아가 전 사회가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언론이 기록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 선행연구는 모두 청조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열강의 시각에서 무술변법을 검토한 것이다. 열강의 외교관·신문·엘리트들이 중국을 관찰하는 시각에는 중국에서의 본국의 권익에 대한 고려가 가득 차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열강의 시각에 편중되었으나, 이러한 시각을 그대로 따르면 무술변법의 원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된 해당 언론이 이루어진 본국 배경, 그 자체의 정확성 여부 등을 쉽게 무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논리와 진의에 의해 무술변법은 가려진다. 또 부수적인 결과로 열강 이외에 다른 나라의 사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셋째로 변법에 대해 열강의 외교관·신문·엘리트 등은 보편적으로 냉정하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열강이 이처럼 무술변법을 관찰한 것은 중국에서의 본국 이익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편향적이다. 또한 외국인의 권한을 확대하지 않는 무술변법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열강의 보편적인 인식은, 그 실패의 주된 원인을 개혁파의 선천적 연

약함으로 돌리는 중국 역사 교과서의 일부 관점<sup>15)</sup>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양자는 모두 무술변법의 실패를 미리 예정하는 일종의 역사예정론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무술변법이 청조 형세 나아가 중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간과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sup>16)</sup>을 통해 무술변법을 검토하려는 시도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술변법은 중국 근대사의 큰 정치적 사건으로서 당시 독립신문·황성신문을 비롯한 조선 신문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청조와 실제 외교 관계가 없고, 외세 침략의 본격화, 한반도에서의 열강의 균형, 독립협회 등 정치 단체의 활약, 신문 기구의 설치, 한글 개혁 등 상황에서 탄생한 독립신문은 부정적인 중국관을 한결같이 유지했다는 시각은 거의 학계의 정설이다.

가령 이호재는 최초로 독립신문의 청조 보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청나라에 대한 평가는 청일전쟁 후에는 모멸에 찬 것이 된다”<sup>17)</sup>고 보았고, 김민환은 나아가 “중국에 대한 비판은 주로 구습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중되었다”<sup>18)</sup>고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통계적 분석을 응용한 채백은 독립신문의 중국관이 초창기에 비해 다소 완화된 시기가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나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sup>19)</sup> 최근에 이르러 독립신문은 청조를 천조 상국을 자랑하는 나라로 보고 있던 조선 지식층의 인식을 거치며 오히려 청조를 야만국으로 여긴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신재, 최승현, 김성호(金成鎬) 등은 모두 독립신문의 부정적인 중국관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백영서는 이러한 대청 인식을 ‘천한 청’으로 집약하고 이에 의거하여 독립신문이

---

15) 貝國梁, 「‘戊戌變法’(教案)」, 『歷史教學問題』 4, 1984; 李清純, 「略論維新變法失敗的原因」, 『考試周刊』 85, 2017; 蔡權, 「在課堂教學中追求真實的歷史敘述——‘以戊戌變法失敗的原因’教學為例」, 『教育科學論壇』 31, 2019 등을 참조한다.

16) 비록 1897년에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꿨지만, 이러한 변경이 본 논문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게 사용한다.

17) 이호재, 「한국인의 대외인식변화」, 『한국정치학회보』 10, 1976, p.297.

18) 김민환,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 나남출판, 1998, p.60.

19) 채백, 「주요 국가에 대한 독립신문의 정치적 입장—논설의 보도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1, 1999, pp.267-269.

무술변법을 실현되지 못할 ‘서기지망(庶幾之望)’으로 보아 청조를 ‘개혁 모델’로 생각할 리 없다고 하였다.<sup>20)</sup> 이들의 연구는 무술변법 당시 독립신문이 청조를 문명개화와 낙오자로 보고 있었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상술한 연구와 달리, 류목림(劉牧琳)은 광서제를 성군으로 묘사하며 변법을 ‘중흥지업(中興之業)’으로 한 신문 기사에 근거하여 완전히 부정적인 중국관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sup>21)</sup>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아 혁신유학자가 창간한 황성신문의 중국관에 대해서, 이세주(李細珠)는 신축 신정 이래의 청조 보도를 검토하여 청 정부의 부패 현황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 및 전체적·구체적으로 칭송함이 병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노관범은 무술변법 이후부터 신축 신정 이래에 “‘천한’ 중국에서 ‘개혁 모델’의 중국까지 또는 문명개화의 낙오자에서 연대의 대상과 변혁의 모델까지”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하였다.<sup>22)</sup> 따라서 독립신문은 부정적인 입장 일변도의 중국관을 갖추고 있었고, 황성신문의 중국관은 부정에서 긍정까지 변화되거나 부정과 긍정이 양립하고 있었다고 보는 연구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신문의 중국관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로 선행연구는 모두 이 두 가지 신문의 대청 인식을 피상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러한 관념이 형성된 국내외의 배경, 특정 상황[특히 조선의 정치 국면, 독립협회의 동향] 등과 결합하여 배후의 동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독립협회의 정치 운동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정치적 사건으로서 무술변법의 개혁 조치가 독립협회의 정치 주장과 비슷한 만큼 독립협회는 이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정치 주장을 홍보하는 여론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에게 조선에서 진행했던 독립협회 운동은 무술변법의 대외 이미지, 영향 등을 탐구하는 좋은 참조가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변법 보도 배후에 독립협회가 무술변법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

20) 백영서, 「大韓帝國期 韓國言論의 中國 認識」, 『역사학보』 153, 1997, pp.122-123.

21) 劉牧琳, 「甲午戰後朝鮮對中國認識的變化—以獨立新聞爲中心」, 『當代韓國』 3, 2019, pp.125-128.

22) 노관범, 「대한제국기 황성신문의 중국 인식」, 『한국사상사학』 45, 2013, pp.39-40.

이용했던 것인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 독립신문은 부정적인 입장 일변도의 중국관을 갖추고 있었고, 황성신문의 중국관은 부정에서 긍정까지 변화되거나 부정과 긍정이 양립하고 있었다는 선행 연구사 판정은 추가적 검증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언론의 일부 내용, 표면상의 입장을 정리해 대청 인식의 변화라고 집약하고 있다. 가령 독립신문의 경우 영문판에서는 청일 전후의 성선회의 군대 개혁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고, 한글판에서도 무술정변 후에 광서제를 성군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무술변법을 중흥지업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점은 류목림이 한글판의 몇 편 기사만을 통해 지적하였지만, 독립신문 영문판이나 다른 신문과의 대비 및 조선 국내의 배경 등과 결합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표면적·편파적인 중국관이라고 판정한 데 불과하였고 이 경우, 사실에 어긋난 잘못된 추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황성신문의 경우, 창간 초의 수십 일 동안에 꾸준히 청조의 보수함을 비판했고, 무술정변 후에 오히려 보수파인 서태후파를 찬양했던 발언이 나타났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에서는 당시 조선인의 중국관을 엿볼 수 있는 절호의 시각인 무술변법에 대한 보도를 간과하였다. 사실 이러한 무술변법의 보도에서 독립협회와 혁신유학자의 인식과 배후를 파악할 수 있기에 그들의 단체적·국가적·지역적 이익에 따라 대청이나 변법 관찰이 변화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로, 청조 보도에 관한 연구 가운데 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와 같은 시기의 황성신문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황성신문의 연구는 주로 신축 신정의 보도에 집중되고 있지만 신축 신정과 긴밀한 연결<sup>23)</sup>이 있는 무술변법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

---

23) 신축 신정과 무술변법의 연결성에 대해, “신축 신정은 무술변법과 양무운동이 계속·심화·발전되는 과정”이라는 장화지(蔣華志)의 관점이 있고, 일부 학자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양무 운동과 무술변법이 가진 규모·실적·영향 등 기준에서 신축 신정만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더욱 “이제 서태후는 뒤엎어 버린 무술변법을 되풀이하러 그의 ‘대적’들이 미완성한 사업을 계속해 나갔다”는 장연기(張連起)의 주장이 제시되었다. 蔣華誌, 「清末新政新論」, 『樂山師專學報(社科版)』 2, 1990, p.30; 陳向陽, 「90年代清末新政研究述評」, 『近代史研究』 1, 1998, p. 300; 張連起, 「戊戌變法」與“清末新政”異同辨析, 『北方論叢』 2, 1986, pp.109-110 등을 참조한다.

았다. 이처럼 한글판 내용을 중히 여기는 한편 영문판과 황성신문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연구 경향은 이러한 편파적인 중국관을 야기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서구권 독자들을 예상 독자로 상정했던 영문판에서는 비록 조선의 독립을 홍보하기 위해 청조를 폄하할 의도가 있었을 것이지만, 조선이 청조와 같이 동양에 속해 있는 나라이고, 서구 나라로부터 침략에 직면하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동양의 입장에서는 청조 이미지가 영문판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황성신문의 변법 보도는 무술변법 및 청조에 대한 조선인의 이해를 파악하는데 하나의 참조가 된다. 창간 초에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아 혁신유학자가 정치적 주장을 제시하던 때, 독립협회 해산 전후 변화된 논술 경향,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과 같은 시점에서 발생한 무술변법의 보도를 통해 황성신문 보도 경향성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의 보도를 서로 비교하고 검토하여 신문 기사의 편향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무술변법에 대한 조선인의 이해 및 중국관을 더욱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선행연구에서는 ‘열강의 시각에 따라 본 무술변법’과 ‘편파적 중국관’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였다. ‘열강의 시각에 따라 본 무술변법’은 중국에서의 이권과 관련된 열강의 외교관, 신문, 엘리트 등의 관찰을 채택하여 그들이 청조 내정에 대한 간섭, 비판과 이 시각에서 이루어진 비판적 무술변법 인식을 보여줬다. 편파적인 중국관은 당시 조선 신문의 일부 언론 내용을 정리해 얻어낸 피상적인 대청 인식으로서 전형적 사건 보도에서 나온 입장들과 다른 언론지 상의 내용, 이러한 관념 배후의 배경과 형세, 독립협회 정치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내부적 동기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아울러 독립신문 영문판과 황성신문의 보도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편파성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새로운 시각을 취해 청조에서의 특권이 없고, 청조와 평등한 외교 관계를 맺으려던 당시 조선의 대표적 신문인 독립신문 한글판과 영문판, 황성신문의 무술변법 보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청일전쟁 이후 무술변법 전까지 조선 신문들의 대청 기본 입장, 변법 관찰의 기초 및 배후의 여러 이익 등을 밝히고, 다음으로 변법과 정변 후의 보도를 같은 시기에 발생한 독립협회 활동과 결합하여 조선 신문계의 보도 경향이 독립협회 정치 활동의 전개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조선 신문계의 변법 보도의 특징, 열강 가운데 무술변법을 가장 세밀히 관찰했던 독일과 일본의 시각에 따라 본 무술변법과 한국의 신문계가 갖는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술변법이 조선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조선 신문계의 무술변법 보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독립신문 배후에 단체적·국가적·지역적 등 다양한 이익과 결부된 다양한 입장이 있었다는 점, 황성신문은 혁신유학자와 독립협회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는 점, 큰 정치적 사건인 무술변법이 독립협회의 정치적 활동과 비슷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며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신문계가 그를 많이 보도했다는 점 등 새롭게 볼 수 있는 분석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독립신문은 배후 다차원의 이익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각도를 취해 청조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황성신문은 혁신유학자와 독립협회의 정치 주장, 입장에 따라 변법을 보도하였으며 조선 신문계는 자신들의 입장, 관찰한 현상에 의거하여 독일과 일본보다 무술변법을 긍정적 또는 희망적으로 인정했다는 논점을 논증하여, 독일과 일본의 관찰과 다른 무술변법 및 무술변법 보도의 배후 이익 아울러 그 후 조선의 대청 인식, 정책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는 청일전쟁 후에 독립신문의 중국관을 검토하고, 이러한 언론 배후의 ‘단체적·국가적·지역적’인 이익 관계 및 청조 개혁파의 정치 주장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변법에 대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보도 내용을 당시 독립협회의 활동과 결부시켜서 그 배후의 동기를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무술변법의 각 시기에 나타난 조선 신문의 보도의 특징, 독일과 일본 신문의 보도와 비교하여 보이는 조선 신문의 특징과 아울러 이러한 중국관이 조선의 대청 활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무술변법 전후에 조선 신문계가 변법을 관찰하고 이에 반응하

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열강의 시각에 따라 본 무술변법’과 ‘편파적인 중국관’ 등 선행 연구가 보여준 문제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I. 무술변법 전 독립신문의 대청 관찰

## 1. 청일전쟁 후의 형세와 독립신문 배후의 이익

19세기 말 한반도는 청일 양국의 각축장으로 전락하였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자신의 안전 이익을 구실로 한반도의 침략을 진행하였고, 청조는 조공국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조선은 1894년 동학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청조에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조의 출병 소식을 접한 일본도 교민 보호를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양국의 충돌에 따라 발생한 청일전쟁은 청이 패배하면서 시노모세키 조약(馬關條約)을 체결하고 마무리되었다. 청조의 해군력 및 넓은 영토와 인구에 근거하여 청조의 승리를 확신한 다수의 서구 신문들은 낮은 수준의 중국의 군사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심지어 청조가 제대로 된 군사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냉소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아편전쟁의 패배에서 손상된 청조의 국제 위상은 이제 완전히 낙후하고 근대화 문명을 배척한 야만적 실체로서 전락하였다.<sup>24)</sup> 그리고 러시아는 프랑스·독일과 같이 일본이 조약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요동반도를 청조에게 반환하도록 강제하며 여순(旅順)을 점령하였다. 러시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의 워싱턴 포드(Worthington C. Ford)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고 증명된 제국을 장악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 전리품을 나눌 욕망을 불러일으켰다”<sup>25)</sup>고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열강들이 잇달아 청조에서 세력 범위를 나누고 특권을 쟁취하였으며 청조를 분할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청조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얻었지만, 러시아와

---

24) Rolf-Harald Wippich, *Review of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by S. C. M. Paine, *Monumenta Nipponica* v. 59(2), 2004, pp.258-259.

25) Worthington C. Ford, *The Commercial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Far East,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Political and Commercial,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3, 1899, p.108.

일본이 다투어 노리는 ‘고기’가 되었다. 두 나라는 조선의 광산과 삼림 개발, 철도 부설, 항구 개방, 인원 채용 등 권리의 획득에 대해 경쟁하면서, 조선의 내정 문제에 대해 협상<sup>26)</sup>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열강들은 잇따라 조선에서 일련의 특권을 획득하였다. 외세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한편으로 조선 내부의 농민 봉기, 행정 부패 등 문제를 더욱더 가속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조선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행위를 반대하기 위해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독립협회 등의 사회단체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형세에서는 조선 정부는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에게 신문의 발행을 맡겼다. 그리하여 조선 정부의 지지를 받은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그 역할은 근대문명을 전달하여 조선의 근대화를 실현하고, 자주독립의 신념으로 민중들을 계몽하는 것이었다.<sup>27)</sup> 동시에 이 신문은 영어로도 발행되었는데, 국제적으로 조선의 개혁을 홍보하여 조선의 독립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제 사회에서 조선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형성하고, 심지어 열강들과의 담판에 어느 정도 유리한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대표적인 신문 매체인 독립신문의 대외 보도 경향은, 서구의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조선 정부와 청조에만 부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sup>28)</sup> 이른바 앞에서 언급한 독립신문의 ‘부정적 중국관’이 그것이다. 김민환과 김수자는 독립신문에서 부정적 중국관이 형성된 것은 ‘수구하고 개혁하지 않았던 청국’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sup>29)</sup> 하지만 사실 청조가 청일전쟁 후에 이를 반성하고 실시한 신식 육군 건립에 관한 개혁안에 대해서 독립신문 영문판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6) 청일전쟁 후, 러시아와 일본은 1896년 5월 14일, 1896년 6월 9일과 1898년 4월 25일에 각각 협상하여 『베베르-고무라 각서(혹은 京城議定書)』, 『야마가타-로바노프 의정서』와 『로젠-니시 협상』을 체결하였다. 김원수, 「청일전쟁 및 삼국간섭과 러시아의 조선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2), 2015, pp.49-50을 참조한다.

27) 독립신문影印刊行委員會 編, 『독립신문』(영인본), 社團法人新生活國民運動協會, 1981, 간행사.

28) 채백, 앞의 논문(1998), pp.266-272.

29) 김민환, 앞의 책(1998), p.60; 김수자, 「근대 조선의 ‘탈중화’와 지역 의식의 재구성—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동방학』 37, 2017, p.162 등을 참조한다.

“성(선회)이 황제에게 제시한 것은 아직 외국 신문에서 발표되지 않은 군대 편성에 관한 계획이다. 그는 ‘제국 상비군 외에 백만 명의 군대[綠兵練勇 등을 말함: 인용자]가 있어서 삼천만 량의 군비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같은 비용으로 외국 군제에 따라 십만 명의 군대[신식 육군을 말함: 인용자] 편성을 편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 제도가 오랫동안 운행될 시 그 결과로는 청국 제국의 현대 전쟁에 투입할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며, 모집 공고를 발표한 후에 신속하게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0)</sup>

이 기사는 1896년 10월 성선회가 ‘자강대계첩(自強大計摺)’에서 녹영(綠營)을 철폐하고 신식 군대의 건설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안은 최종적으로 “시행을 준허하고 정해진 제도로 삼는다”<sup>31)</sup>고 결정하였고, 청일전쟁 후에 군사 개혁의 중요한 조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성선회의 상주와 비교하여 보면, 이 기사에서 나온 예상 효과는 성선회가 자체적으로 서술한 것<sup>32)</sup>이 아니고, 독립신문의 독자적인 평가이거나 다른 신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청조의 보수성을 비판하는 독립신문의 한글판과는 다르게 영문판은 청일전쟁 후의 청조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일부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을 가진 보도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청 정부가 산동의 거야교안(巨野教案)과 독일이 교주만을 강제 점령한 교주만사건의 해결에 대해 독립신문의 한글판과 영문판이 취한 다른 보도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 거야교안은 1897년 11월 1일에 독일의 선교사인 히라프트 헨레와 프란츠 자버 니스가 거야 일대에서 피살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독일은 이를 구실로 교주만을 강제 점령하고, 청조는 독일과 5개월 동안 담판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교오(膠澳)조계

30) Departemental News, A New Chinese Army, *The Independent*, January 19. 1897.

31) 盛宣懷, 「自強大計摺(附片二件)」, 麥仲華 編, 『皇朝經世文新編』卷一, 瑤林書局 刊行, 光緒二十八年(1902)本.

32) 성선회가 예상한 효과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식 군대는 규모가 변화될 여지가 있어 군사 각자가 돌아갈 곳이 있다. 둘째, 군무의 필요로 병사를 정소하고 훈련한다. 셋째, 군무가 끝난 후에 병사가 귀농하여 유구로 될 수 없다. 넷째, 각 진(鎭), 영(營)의 제도, 급료, 장정 및 총기가 통일된다는 것이다.

조약을 체결하여 독일의 강점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폴 코엔(Paul Joseph Cohen)이 칭하는 것처럼 “열강들이 중국에서의 제국주의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돌파구”<sup>33)</sup>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당시 독립신문은 이 사건을 역시 적극적으로 보도하되, 한글판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청조 이미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영문판에서는 외침에 반격하는 청조를 많이 서술하였다. 두 버전의 기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1-1> 거야교안과 교주만사건에 대한 한글판과 영문판의 비교

	영문판	한글판
독일의 요구와 청 정부의 반응	피살당한 선교사의 배상금, 산동 철도 부설, 교주만 조계 개설 등 요구에 대해서, 청 정부는 교주만에서 철도까지 전까지 담판을 거절한다고 발표함(1897년 12월 4일)	피살당한 선교사의 배상금, 산동 철도 부설, 교주만 조계 개설, 지방관 파면 등 요구에 대해서, 청 정부는 독일이 응당 철폐하고 담판을 요구한다고 생각함(1897년 12월 4일)
청 정부의 내부 결정	12월 3일의 회의에서 청국 황제는 피살당한 선교사에게 배상하고 교회당을 다시 세우며 원수를 엄벌에 처할 것을 준허하였지만, 남은 요구는 황제가 죽더라도 황당한 요구에 대로 동의하지 않겠다더라. 또한 청 정부는 영국의 중재를 청구하며 프랑스 러시아와의 회의에서 제시하여 외교수단으로 해결하기로 시도함(1897년 12월 23일)	청 정부는 영국의 중재를 요구하였으나 영국 정부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표명함(1897년 12월 9일) 청국 이홍장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친왕(恭親王)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독일의 요구를 모두 승낙한다고 생각하였고, 황제는 공친왕의 의견을 좇취하여 교주만을 주기로 결정하였음(1898년 1월 13일)
청 정부의 외교 의거	청국에서 교주만의 점령은 非정적인 행동이자 국제법에 어긋난 행위라고 주장해서 한결같이 승인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청국과 상의 없이 독일의 행위를 인정한 나라를 비우호적인 나라로 간주할 것임(1897년 12월 14일)	청국 정부에서 교주만 강제 점령은 국제 공법에 어긋난 행위라고 인정하고, 다른 나라가 독일의 교주만 강제 점령을 승인한 것이 우호적 행동이 아니라고 보았음(1897년 12월 14일)
청 정부의 군사 반격	청국 군사가 교주만의 독일 군대를 진공하기로 시도하였는데, 독일의 경고를 무시하여 용감하게 진군하였으나 격퇴를 당해 안전 지대에 철회하였음(1897년 12월 16일)	청국 군사는 교주만의 독일 군사를 침범하려고 하는데 독일 군사가 총을 놓을 줄을 모르는 줄로 알고 왈카법하였으나 몇 명이 죽었으니 나머지 다 달아났음(1897년 12월 18일)
사건의 결과	독일은 조약의 체결을 승인하고 교주 일대의 영토와 철도 부설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청국은 모두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또한 독일은 임의로 조계를 바꿀 수 있으나 청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함(1898년 1월 11일)	청 정부는 교주에서의 권리를 모두 주고 독일은 또한 임의로 조계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음(1898년 1월 11일) 청 정부는 독일이 소주부터 교주까지 철도를 부설할 것을 준허했음(1898년 3월 8일) 청 정부는 파괴당한 교회당에 배상금을 주었음(1898년 3월 31일)

33) Paul Joseph Cohen, *History in Three Keys: The Boxers as Event, Experience, and Myth*,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21.

위의 기사 내용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글판에서는 청조가 독일의 요구에 시원찮은 외교 설명을 발표하고 고의적으로 전쟁을 피했으며 군사 충돌에서도 소극적이고 연약하기 그지없었다고 서술하였지만, 영문판에서는 청 정부가 국제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였고, 독일의 침략에 용감하게 대응하여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동일한 사건에 대한 예로는 청조 군대가 교주만에서 철회할 때의 정황을 보도함에 있어서, 한글판은 “청국 군사들이 생각하기를 독일 사람들이 총 놓을 줄을 모르는 줄 알고 왈각 범하거늘 …… 그 나머지는 다 달아났다.”<sup>34)</sup>고 하고, 영문판은 “(독일 군대가 총을 쏜 것을) 경고로 삼는 대신 중국인들이 나아가 요새로 용감하게 전진하기 시작했다. …… (독일 군대의 격퇴를 당한) 얼마 후 안전 구역으로 퇴각하였다.”<sup>35)</sup>고 하였다. 전자를 읽은 독자들에게는 청군의 우매함과 무식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상을 주고, 후자를 읽은 독자는 용감하게 맞서는 청군이라는 모범적인 모습을 읽게 되었다.

그러나 영문판에서는 또한 교주만 사건에 대해 “중국의 현황은 한국과 비슷하게 방책이 없으며, 인민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통치자는 사적인 계획을 제정할 뿐, 부패와 무식으로 가득 차 있다.”<sup>36)</sup>고도 보도하였다.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려던 청조 내부에서 ‘일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how-not-to-do-it]’ 는 분위기가 깃들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경한선(京漢線)과 송호선(淞滬線)이라는 철로의 건축에서 청 정부의 무능함과 낮은 행정 효율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였다.<sup>37)</sup> 이러한 논조는, 같은 시기에 “이전보다 시사를 구차하게 처리하고, 의도적으로 꾸미는 정도는 더 심각해지니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없다”<sup>38)</sup>고 하며 “북경의 관원은 남에 대한 공격에 능숙하고 … 당(黨)속에 당이 있고, 당에서도 서로 공격하며 항상 훼방과 칭찬을 섞어서 전후에 모순되는 일을

34) 외국통신, 『독립신문』, 1897년 12월 18일.

35) Here And There, *The Independent*, December 16, 1897.

36) The Situation in The Far East, *The Independent*, October 30, 1897.

37) Miscellaneous news, *The Independent*, May 25, 1897을 참조한다.

38) 譚嗣同, 「致劉淞芙」, 蔡尙思 方行 編, 『譚嗣同全集』, 中華書局, 1981, p.484.

한다.”<sup>39)</sup>는 담사동(譚嗣同) 비판에서 청조 관원들은 서로 사욕을 두고 다  
툴 뿐, 활기라고는 없는 청조 사회의 현황을 보여준다. 한글판과는 다르  
게 영문판은 청조의 반침략 행위 등에 대해 인정하였지만 청조에 대해  
마냥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겠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글판과 영문판이 청조에 대한 논조가 이루어지고 폄하, 부정,  
비판, 인정, 동정 등 감정이 나타난 배후는, 사실 “집단[독립협회]-국가와  
민족[조선]-지역[동양]”의 다층의 이익이 걸린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집단의 이익 측면에서 한글판은 청조를 비판함으로써 조선 정부를 비판·  
경고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는데, “청국과 조선  
은 당초에 세계 형편을 모르고 있는 즉, 이 세 나라가 동양 권리를 차지하  
는 것이 청국과 조선에 무슨 이해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터이다”<sup>40)</sup>고 풍자하였고, “대한이 어서 물을 쥐어 먹고 청국을 목  
전에 두고 보아 청국대로 구습에 취하여 잠자면 망하는 것을 징계물로  
알아 밤낮없이 배우고 진보한다.”<sup>41)</sup>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청조를 거울로  
삼아 문명개화를 진행할 것을 당국에 경고하였지만, 당시 진행하고 있는  
갑오개혁의 여러 가지 문명화 조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며,  
심지어 조선이 사회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된 원인을 조선 정부 치  
하의 조선 내부로 돌리려는 “내인설”<sup>42)</sup>을 여러 번이나 신문에 게재하였  
다. 같은 시기에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건립하고 만민공동회, 토론회 등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벌이던 것과 결합하면, 청조를 폄하하여 당국을  
비판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국가 이익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 서술에 근거하면 한글판에서  
부정적인 중국관을 조성한 것은 조선이 청조의 제어에서 벗어나 독립적  
인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청조에 대한 정치적 청산, 그리고 민족 자신  
감을 높여주어 자신의 주체성 등 국가와 민족 이익을 체현하기 위한 것

39) 譚嗣同, 「上歐陽鵠」, 蔡尙思 方行 編, 『譚嗣同全集』, 中華書局, 1981, p.467.

40) 논설, 『독립신문』, 1897년 9월 9일.

41) 논설, 『독립신문』, 1898년 4월 7일.

42) 채백, (앞의 논문, 1998), p.264을 참조한다.

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있는 청조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부추기지 않고 청조와의 외교 분쟁을 일으킬 언론도 조성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에 들어온 청조 노동자의 수가 오히려 대폭 증가하였다.<sup>43)</sup> 독립신문의 행위는 1931년 조선일보와 경성일보에서 만보산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중국인을 배척하는 언론을 조성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조선을 제어하기 위하여 조선 민간의 반항을 일으킨 것에 대해 한글판은 이를 “조선에 온 일본 사람 중에 큰 형세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조그마한 이익만을 취하여 조선 사람을 박대하는 일도 많았고, 또 팔월변(을미사변을 말함: 인용자)에 일본 사람들이 관계가 있었다.”<sup>44)</sup>고 발언하였고, 영문판에서는 비록 형세를 악화시킨 일본인의 행적에 대하여 질책하였지만, 그 중점은 조선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변명하는 것이었다.<sup>45)</sup> 내용상으로 일본에 대한 문책보다는 대외각국에 본국은 무책(無責)하다는 점을 밝히는 외교 선언에 더 가까웠다. 이처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외교 분쟁의 격화를 회피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민족과 국가 이익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영문판의 발언에 의거하여 “반일감정을 표현하고 일본을 문책한다.”<sup>46)</sup>는 김지형의 주장이나 영문판을 참고하지 않은 채, “무술변법을 관찰한 후에야 한국 개화파 지식층의 대청 인식이 기존의 천박하고 경솔한 시각에서 점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변화하였다.”<sup>47)</sup>는 류목림의 결론은 필자의 보기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동양 이익의 측면에서는, 조선은 청조와 마찬가지로 동양에 위치하였을

43) 잡보, 「淸國勞動人の入京」, 『한성신보』, 1895년 10월 7일.

44) 논설, 『독립신문』, 1896년 4월 18일.

45) Editorial, *The Independent*, May 2, 1896. “The second is that the present disturbed condition of affairs in Korea is an outcome of the intervention of the Japanese in the politics of Korea. In the third place this disturbed condition of affairs was very greatly increased by the events of October 8th 1395 when, at Japanese instigation, the Queen was murdered and the Korean government would be wholly absolved from responsibility in the matter”

46) 김지형, 「독립신문의 대외인식과 이중적 여론 조성-‘한글판’과 ‘영문판’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44, 2008. p.100.

47) 劉牧琳, 앞의 논문(2019), p.128.

뿐만 아니라, 열강들로부터 침략도 받고 있었기에, 서구의 독자들에게 조선이 독립국임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영문판의 중점은 대외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이었기에 굳이 청조를 비하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다툼을 벌일 때, 독립신문은 오히려 “비록 중국이 종주국의 요구를 제기하였으나 단 한 번도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그 조공품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중국은 조선으로 하여금 자기[조선을 말함: 인용자]의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다.”<sup>48)</sup>는 주장을 제시하여 중국이 조선의 내정을 존중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립신문은 청조가 교주만을 강제 점령한 독일에 대해 강하게 저항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동아시아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굳은 결의를 서방의 예상 독자들에게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그와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유지함에서 출발하여 독립협회는 청조가 교주만을 할양한 일로 조선 당국에 권유하여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거절하였다.<sup>49)</sup> 이를 통해 독립신문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청조의 사례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단-국가와 민족-지역”이라는 다층의 이익 때문에, 독립신문의 한글판은 조선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 독립협회의 정치 주장과 건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 등 국내 사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영문판은 조선의 정책, 주장에 대한 소개, 국제 형세에 대한 평가 등을 주로 다루었다.<sup>50)</sup> 또한 선행연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완전히 “청조를 폄하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여러 이익에 따라 청조의 다양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즉 청일전쟁 전후에 독립신문이 청조에 대한 관찰의 출발점은 시종 그들의 이익과 부합하였으며 그 후 진행된 무술변법에 대한 관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48) Her Own Mistress, *The Independent*, March 26. 1898.

49) 정교, 「대한계년사」 권3, 국사편찬위원회, pp.176-177을 참조한다.

## 2. 무술변법에 대한 독립협회의 인식 기초

독립신문 배후의 다양한 이익뿐만 아니라, 무술변법 지도층의 유신사상과 독립신문의 창간 단체인 독립협회의 정치 주장과의 적합 여부는 후일 독립신문이 무술변법을 인식하는 기초가 되었다. 양자의 공통점은 독립신문의 착안점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상적으로 공명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양자의 차이점은 독립신문의 보도 경향과 방식 등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독립협회와 무술변법의 지도층의 정치적 주장을 비교함으로써 무술변법에 대한 독립신문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선 살펴야 할 부분은 무술변법의 지도층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에는 “청나라 유신파가 무술변법을 지도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변법을 이끌었던 강유위와 그 동료들을 유신파라고 불렀다. 하지만 당시에 ‘유신’이라는 용어가 무술변법 당시의 강유위와 그의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데만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51)</sup> 따라서 신중한 논술을 위해 본 논문은 무술변법의 지도층을 ‘유신파’가 아닌 ‘개혁파’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러나 개혁파 또는 유신파는 정치적 파벌로서 내부구조와 구성원의 직책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정당 단체의 성격을 가진 독립협회와는 성격상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또한 개혁파의 정치적 주장 및 무술변법에 대한 구상은 그들이 강학회(強學會)를 조직하였을 때에 이미 제시되었다. 따라서 설립 배경·정치적 주장·조직 형식 등에 관하여 말하자면, 강학회가 독립협회와 비교연구 대상으로 가장 적합할 것이다.

강학회는 청일전쟁 전후에 강유위를 비롯한 개혁파가 광서제에게 상서를 올려 위로부터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중국의 자강만을 위한” 정치적 단체였다. 강학회의 성립은 당시의 “국가를 멸망으로부터 구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최선책”<sup>52)</sup>이었고, 무술변법 전에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된다. 강학회와 독립협회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양자는 모두 자강과 변혁이 추구되는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하였고,

51) 葉斌, 「戊戌變法與‘維新’名號」, 『文匯報』, 2016년 6월 24일을 참조한다.

52) 蔡尙思 方行 編, 『譚嗣同全集』, 中華書局, 1998, p.405.

다음으로 강학회 “유신 자강”과 독립협회 “독립 개화”의 창립 취지가 유사하다. 또한 회칙이나 장정에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직 구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문적인 언론 홍보 기구를 창설함과 동시에 몇몇 고위 관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심지어 그들을 회원으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체를 설립한 지도층이 본국의 정치개혁 운동을 이끌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진압으로 해산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강학회는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였지만, 그들의 우두머리인 강유위와 그 지지자들이 무술변법을 진행할 때까지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강학보(強學報), 중외기문(中外紀聞)에서 제기한 정치적 주장은 무술변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청일전쟁 이후 조선과 청조 두 나라에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자강, 변혁, 독립” 등을 구호로 내세우며, 사회와 국가의 개혁을 주도한 정치적 단체가 탄생했던 것이다. 두 단체가 제시한 개혁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2> 개혁에 관한 강학회와 독립협회 개혁 주장의 비교<sup>53)</sup>

	독립협회	강학회
개혁 영역	사회 풍속과 습관, 근대적 국방의 건설, 산업 개발, 근대적 학교와 학제의 도입, 행정과 제정, 정치와 정체의 혁신 등	채광, 기계와 선박의 제조, 철도 부설, 학교 설치, 신문사 창설, 의원 개설, 영농, 산업과 상업 장려, 가난한 자의 구제 등
개혁 중점	자주독립, 자유민권, 자강개혁	민을 부유하게 양육하고 가르침(富民, 養民, 教民)
홍보 특징	직언과 비판	탁고개제, 광서제 상유를 빌어 정치 주장을 피력함(借諭發揮)
개혁의 핵심 주장	1.인민은 생명, 재산, 언론, 출판, 정치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민권), 정치 이론, 투표 등 자유 권리를 가지고 국가 권리는 인민이 소유한 것임 2.의회를 개설하여 입법과 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대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인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 정책을 막힘없이 실시하고 위와 아래 사이에 서로 조합함	1.학회를 창설하여 멸망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신문사를 개설하여 인민의 고통을 통달하고 지혜를 계몽함 2.의원을 개설하고 의원을 선거하여 위와 아래 사이에 막힘없이 통달함

53) 신용하, 『독립협회연구—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사상과 운동』, 일조각, 1976; 湯誌鈞, 「強學會在維新變法運動中的作用」, 『歷史教學』 9, 1964; 湯誌鈞, 「上海強學會和強學報」, 『社會科學』 3, 1980; 殷敦新, 「對強學會變質的探究」, 『鎮江師專學報』(社會科學版) 2, 1991; 寧秀艷, 『十九世紀末中朝兩國民權思想比較研究—以戊戌維新運動與獨立協會活動爲中心』, 延邊大學 學位論文(碩士), 2006 등을 참조한다.

<도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자는 청과 조선의 경제, 정치, 군사, 교육, 사회 풍속 등에서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혁의 중심을 모두 “인민”에 두었으며, 근대화정치체제 중에서도 특히, 언론과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에 있어서,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정치 활동을 전개했을 때부터, 일찍이 무술변법에 관심을 보였으며, 독립협회의 정치 주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무술변법의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청조에 대한 다소의 호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양자의 관념에는 다소의 차이점이 있었다. 강학회의 주장은 철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무술변법을 진행할 때에 “각 부, 원(院)에서 구례를 삭제하고 간략한 조례를 따로 제정한다”는 상유만이 모호하게 반포되었을 뿐이며, 첨사부(詹事府) 등 여섯 아문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할 제도를 논의할 무근전(懋勤殿) 설립에 대해서는 준비만 한 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 더욱이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은 언급되지도 않았다.<sup>54)</sup>

홍보 방식이든 개혁의 깊이이든 비교적 보수적 입장이었던 강학회에 비해, 독립협회는 개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조하고 나아가 “민권”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기하였으며 좀 더 본격적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다. 의원 개설에 대하여 양자는 의원의 “위[통치자]와 아래[인민]가 막힘없이 통달한다[上下相通]”는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독립협회는 보다 더 상세하고 전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헌 정체의 실현, 운영, 유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제기하였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철저함과 과감함은 ‘수구’ 대신들의 불만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적 맹우인 협성회가 설립한 매일신문까지도 이를 비판할 정도였다. 이에 독립협회가 취한 탄핵 수단은 제8대 조선 대목인 뮌텔이 보기에든 기존의 입장과 다른 변질된 모습을 보였기에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sup>55)</sup>

54) 湯誌鈞, 앞의 책(2003), p.637을 참조한다.

55) 뮌텔 저 천주교 명동교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뮌텔주교일기』, 한국교회연구소, 1986, p.309. “독립협회가 李容翊을 비난하고 있다…협회의 소행은 더 나쁘고…협회는 한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 원한에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독립신문은 청조의 변법에 대해 일찍부터 주의를 기울였으나, 독립협회의 핵심 정치 이념에 부합하는 부분만 심층적으로 논술하였을 뿐, 나머지 변법의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양자 주장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독립신문의 변법 관찰에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독립협회가 무술변법이 시행되는 동안에 청조의 사례를 예시로 삼아 조선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법이나 청나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무술변법 전에 독립신문을 비롯한 조선 신문매체가 행한 청조에 대한 관찰은 “집단[독립협회]-국가와 민족[조선]-지역[동양]” 등 다양한 이익에 따라 이뤄졌다. 독립신문 영문판에서 청조는 “개혁과 부패”가 병존하는 국가로 묘사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용감하게 외침에 맞서 싸우는 장렬한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어를 사용하는 대중을 상대로 발행하는 독립신문 한글판에선 청을 “미개한 국가”로 폄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에서 청조를 폄하함으로써 에둘러 조선 당국을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독립협회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개혁에 대한 관점이나 핵심 주장, 홍보 방식 등에서 비슷한 성격을 지녔던 강학회와 그들이 추진했던 무술변법을 관찰하고, 그들의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 II.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변법 관찰과 대청 인식

무술변법은 광서제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강유위 등 개혁파의 도움으로 벌인 개혁으로서 당시 독일·일본·조선 등 각국 언론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조선에서는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이 무술변법에 관해 체계적 보도를 하였다.

### 1. 독립협회 운동과 독립신문의 변법 보도

독립신문은 무술변법이 시작된 후인 6월 23일에 이미 청조 내부의 변화를 알고 있었으나, 9월 7일까지 변법에 관한 기사와 언급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독립신문은 9월 7일이 되어 언론 개방을 시행하는 변법 조치에 대한 논설을 내보냈으니,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해 신문을 본즉 청국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각 신문으로 하여금 자금 이후로는 정치상 의논을 자유로 하여, 한편으로는 벼슬하는 사람의 이목을 열게 하며 한편으로는 탐관오리의 악정을 들어내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니, 청국 황제가 문명에 열심(히: 인용자 붙임) 하사 말 길을 넓게 열게 하시는 것은 청국 백성을 위하여 반가운 일이다.

(중략)

지금 청국 황제의 하신 조치가 좋으나 설혹 청국 신문들이 그 말씀대로 바른 말을 하여도 정부 유권력한 사람들이 듣지 않으며 대신과 각 성 총독의 탐학한 것을 말하여도 대신과 총독들은 돈이 많고 권세도 성하며 그 돈을 재조 있게 쓰며 그 권세로 말하는 사람을 위협하면 신문 연설이 시행 못 될 터이니 그리하고 보면 이 칙령이 무슨 효험이 있으리오

대한은 위로 성군을 모시고 안으로는 공평한 정부가 있으나 백성들이

시비하는 일이 있어도 옳은 말도 시행이 안 되며 폐단을 고치기를 청원하여도 고쳐 주지 않으며 칙령과 장정과 법률이 있어도 실시 안 하며 글은 사람의 죄를 들어서 논하여도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권세만 있으면 호발이라도 건드리지 못하니, 대한 같이 적은 나라도 성상의 칙령과 정부의 법률을 시행하기 어렵거든 하물며 청국은 대한보다 수십여 배가 크고 관인들의 재산과 권력이 따라서 많은즉 그 황제의 조칙이 비록 아름다우나 실효 있을는지는 기약 못 하겠도다”<sup>56)</sup>

해당 논설은 첫째로 광서제의 언론 개방 조치에 ‘호의적 개명정책’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효가 있는지를 우려하였다. 둘째, 조선 관원이 민의를 억압하는 현실과 비교하기도 하였다. 셋째, 민중이 정부를 비판 및 감독하는 권리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서 ‘호의적 개명정책’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해당 정책이 민중의 이목을 넓히고, 아울러 관원의 횡포를 억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비록 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지만, 기존의 대청 폄하 입장에서 내렸던 보도의 경향성은 완화된 셈이다.

이 같은 태도 변화의 이유로는 우선 ‘민중의 지혜를 열고[開民智]’ ‘민중의 어려움을 안다[達民隱]’는 청 개혁파의 입장이 ‘민중의 계몽과 교육’,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 ‘관원의 부정부패 고발’과 같은 독립협회 자유민권론의 요구와 유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청조의 사정을 이용하여 민의가 통달하지 못하는 자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나아가 경험, 전례로 삼아 자신들의 주장인 자유 민권 신장에 설득력을 더하려 하였다.

더욱이 조선 정부와 독립협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된 1898년 2월 이후로는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독립협회가 강경한 어조의 상소문을 올리고 만민공동회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고종에게 압력을 가하자, 고종은 탄핵을 받은 관원들을 위로하는 한편, 독립협회의 행적을 법률에 따라 논죄하리라는 경고를 보내기도 하였다.<sup>57)</sup> 심지어 ‘작당’, ‘망의’

56) 명담, 「실효가 있을는지」, 『독립신문』, 1898년 9월 7일.

57) 宮廷錄事, 『舊韓國官報』 號外, 1898년 6월 26일.

와 같이 기존 법률상 사형에 해당하는 죄명<sup>58)</sup>을 언급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독립협회에 중죄를 씌워 탄압하려는 조선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언행이었다.

따라서 독립신문이 민중에게 정부를 감독하는 권리를 부여한 무술변법의 조치를 호의적 개명정책으로 칭찬한 데에는 자기방어의 성격이 담겨 있다. 즉, 독립협회가 정사를 의논하는 것은 망언이 아니라 문명개화의 일환인 ‘언론 자유’이었으며, 독립협회의 상주 또한 작당이 아니라 민의를 통달하는 정당한 행동이라는 주장이었다. 더욱이 ‘문명개화’는 조선 정부가 표방한 과제이기도 하였으니, 고종은 일찍이 경장 개화가 ‘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바가 있다.<sup>59)</sup> 즉 정부의 정책에서 명분을 찾아 자신의 정치 활동을 합법화하려던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청조의 언론 개방을 사례로 조선의 언론과 정치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함을 권유하려던 의도가 있다. 즉 해당 논설은 한편으로는 조선 정부 관원의 횡포로 인해 민의의 실현과 법령의 실행이 되지 못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 개방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의 성군’이 응당 광서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조선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곧 독립협회의 영향력 증대와 정치 요구 실현이라는 의도를 변법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보다 앞서 9월 3일 독립신문 영문판은 청조의 언론 개방에 관하여 고베 크로니클(神戸クロニクル)의 기사를 실어 보도하기도 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데일리 신문(North Carolina Daily News)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신문 사업은 큰 격려를 받았고, 신문사업자들에게 정치를 의논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제국 아홉 번째의 칙령이 반포됨으로 이제 제국의 정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권력자를 계몽하며 관원들의 실정, 불공평을 감추는 면사를 들춰 내

58). 국사편찬위원회 편, 『大明律講解』 2권 1책, 2018, p.118. “若在朝官員, 交結朋黨, 紊亂朝政者, 皆斬. 妻子爲奴, 財產入官”; 국사편찬위원회 편, 『典律通補』 3책, 2016, p.145. “官吏人等, 挾私欺公, 妄生異議, 擅爲更改, 變亂成法, 斬”.

59) 詔, 『고종실록』(33), 고종 삼십이년 윤오월 이십일, p.065b. 이하 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태황제실록』전 52권, 국사편찬위원회출판, 2005을 인용하는 경우 “『고종실록』(책수)”로 약칭한다.

리기 위하여, 이것이야말로 확실히 각국 신문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광서제 폐하는 또한 신문편집자와 기고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비판하라. 앞으로는 비판 대상에게 방해로 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금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피하지도 마라'고 촉구하였다. 아니라면 민중과 정부 관원을 계몽하려는 황제 폐하의 진지한 갈망에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sup>60)</sup>

해당 기사에서는 '광서제의 개명정책'이라는 평가와 같이 언론 개방의 본의를 '관원과 민중을 계몽하려는 황제의 진지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비록 조선 관원의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을 더 덧붙인 한글판에 비해 영문판은 영자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양자는 평가의 논조 면에서 큰 차이 없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조가 언론 개방을 시행한 후에 독립신문의 중국관은 약간 우호적으로 변하였지만, 청조와 관련된 서술에서는 여전히 청조를 사례로 정부를 비판하는 수단을 이용하였다. 독립신문은 어디까지나 청조 자체에 대한 인식보다는, 외국의 사건을 끌어들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이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론 개방을 주장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신문이 민족과 민주 사상을 담은 창간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 실정을 맹렬히 비판한 것을 일종의 애국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무술변법에 관한 보도에서는 국가와 동양 이익에 관한 표현이 결여되어 있고 독립협회의 입장만을 내세운 서술로 보인다. 또한, 조선의 근대화에 촉진하려는 정부 개혁 조치에 대해 독립협회는 비판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이때의 무술변법 보도에서는 국가와 동아시아 전체의 이익이 아닌 독립협회의 이익에만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무술변법의 언론 개방을 대서특필한 데에는, 독립협회의 정치 활동을 위한 합법성을 찾고 조선 정부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

60) Late Telegrams, The Chinese Vernacular Press, *The Independent*, September 3, 1898.

청조의 언론 개방에 대한 보도와 동시에, 독립협회는 고종에게 관원의 부패 문제를 재차 지적하여 이들의 파면을 호소하였다. 고종은 이 상소에 대해 정부 관원을 위로하며 독립협회에게 망언을 삼가라고 했던 기존의 입장과 달리, 해당 관원을 경고하며 독립협회에게도 조정을 우려하는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sup>61)</sup>

이러한 고종의 태도 변화를 당시 권력에 눈이 멀어, 고종의 측근인 김홍륙이 일부 대신들과 결탁하여 고종의 커피에 아편을 넣은 독차사건<sup>62)</sup>과 함께 생각해보면, 고종은 일부 정부 관원들의 부정한 행동으로 신변이 위협받기에 이르자, 독립협회보다 이들이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고종은 정부 관원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독립협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군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언론 개방과 같은 정치적 요구는 거절하였다. 독립협회와 대립하던 중추원 의관 조병식을 추방하는 정도가 고종이 할 수 있었던 대처였다고 할 수 있다.<sup>63)</sup>

정리하자면, 청조의 언론 개방으로 독립신문의 중국관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켰지만 여전히 국외의 사례를 끌어들이 당국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독립협회의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정치적 요구를 쟁취하지는 못하였으나, 고종의 상황을 이용하여 일정한 역할을 인정받았고, 적대적인 입장의 대신을 파면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한편 청에서는 서태후가 무술정변을 일으켜 개혁파를 몰아내었으며, 개혁파의 주요 인사는 체포되었으며 광서제는 유폐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독립신문은 서태후 일파를 비판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10월 26일자 기사는 이러한 논조의 대표적인 예이다.

“청국 북경에서는 완고당 양반들과 간세한 소인배가 썩은 구습으로

61) 宮廷錄事, 『舊韓國官報』, 1898년 10월 11일.

62) 장경호, 「아관파천 전후(1896-1898) 정치권력 변화와 김홍륙 독차사건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81, 2017, p.141.

63) 당시 조병식은 ‘總商會長’을 자처하며 권력을 남용하였고, 이에 고종은 그를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병식의 추방 과정은 宮廷錄事, 『舊韓國官報』, 1898년 9월 16일; 宮廷錄事, 『舊韓國官報』 號外, 1898년 9월 30일; 批, 『고종실록』(38), 고종 35년 9월 29일, p.09a 등을 참조한다.

나라 정사를 탁란하고 충애지심 있는 개화한 사람들을 모해하려고 하다가 황성에 큰 변란이 나서 죄 없는 백성들이 모두 도탄에 들어 죽을 지경인 고로 청국과 접계되어 우리나라 강계, 후창, 자성, 위원, 벽동, 초산, 의주 등지로 피란하는 청국 사람들이 몰려 왔는데 그 등지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청국 피란꾼 까닭에 또한 못 살 지경이라더라”<sup>64)</sup>

해당 기사에 따르면 청조 완고당[서태후 일파]이 일으킨 동란은 자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백성의 생계 역시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무술정변에 연루된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모해건의 연구를 보면 서태후가 실제 숙청한 인물은 양심수[楊深秀, 참수], 양예[楊銳, 참수], 임옥[林旭, 참수], 담사동[참수], 강광인[康廣仁, 참수], 류광제[劉光第, 참수], 서치정[徐致靖, 감금], 장인환[張蔭桓, 추방] 등 몇 명 및 장형(杖刑)에 처별된 열네 명의 환관에 지나지 않았다.<sup>65)</sup> 또한 『무술정변후청정부징처강량당인당안(戊戌政變後淸政府懲處康梁黨人檔案)』에 의하면, 탈주한 강유위, 양계초, 문정식(文廷式), 송백노(宋伯魯), 왕조(王照) 등을 제외하면 변법으로 인해 연루되어 실제 처분을 받은 인물도 이단분[李端棻, 추방], 서인주[徐仁鑄, 면직], 진보잠[陳寶箴, 면직], 진삼립[陳三立, 면직], 옹희령[熊希齡, 면직], 장백희[張百熙, 면직], 옹동화[翁同龢, 면직], 증화[曾鈺, 면직], 피석서[皮錫瑞, 축척<sup>66)</sup>] 등 아홉 명 정도이다.<sup>67)</sup>

유폐된 광서제를 제외하면 무술정변의 피해자는 전원 관원이고, 대부분 북경에 있는 관원이었다. 그렇기에 정변의 영향력이 일반 백성에게 미쳤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조선으로 피난해간 백성이 많아 변경의 질서를 어

64) 잡보, 「완고 난국」, 『독립신문』, 1898년 10월 26일.

65) 茅海建, 앞의 책(2005), pp.132-137; 142-149 등을 참조한다.

66) 축척(逐斥)이란 청 때에 있어 관원을 질책하고 본적으로 돌려보내 또다시 임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관원 처분이었다. 『한어대사전』(10), p.14855. 이하 羅竹風 編, 『漢語大詞典』 13冊, 漢語大詞典出版社, 1992을 인용하는 경우 “『한어대사전』(책수)”으로 약칭한다.

67)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戊戌政變後淸政府懲處康梁黨人檔案(上)」, 『歷史檔案』 2, 2018;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戊戌政變後淸政府懲處康梁黨人檔案(下)」, 『歷史檔案』 3, 2018 등을 참조한다.

지럽혔다는 언론의 보도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한-청-러 변경 일대에서 마적들이 수시로 강을 넘어 조선 경내 부근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며, 이에 “변방 백성들이 부지할 수 없는지라 역토 전담으로 군사를 실시하여 방비하라”<sup>68)</sup>는 함경남도 관찰사의 보고를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청조 피난민은 마적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마적에게 쫓겨난 것은 청 측의 백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독립신문은 서태후 정변의 규모와 피해를 과장하여 보도하였으며, 심지어 이와는 관련이 없는 완고당의 잘못으로 몰아갔다. 이는 무지에 따른 오해보다 비판을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결과라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실제 독립신문은 초기부터 청조 완고당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부정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완고당들이 황제에게 이 사람들[개화한 사람: 인용자]을 참소를 하여 물론 무슨 일이고 문명 진보하는 일은 못 되도록 하니, 정부가 점점 말이 못 되어 백성과 정부 사이가 점점 원수가 되어 가고 전국 인민이 나라 흥망을 조금치도 걱정 안 한다”<sup>69)</sup>는 논술은 완고당에 대한 독립신문의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아가 무술정변 이후로는 완고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그들이 망국의 근본이라는 노골적인 비판까지 감추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영문판에서도 정변의 원인을 서태후의 체면 유지로 돌리고, 서태후가 망국 후를 위한 탈주 계획을 세웠다는 자림서보(字林西報)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였다.<sup>70)</sup> 이는 불분명한 추정에 불과하였으나, 어쨌든 이를 인용한 목적은 서태후를 비겁한 이기주의자로 묘사한 것이었다.

서태후 일파에 대한 비판이 격화되는 시점은 곧 독립협회가 ‘수구파 일곱 대신’을 규탄하며 개각을 요구하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우선 법무대신 신기선이 독차사건을 계기로 폐지되었던 연좌 사형제를 부활하려 하자, 독립협회는 이를 반대하며 부활을 주장한 대신들을 수구로 비판하였으며 아울러 10월 7일, 8일, 10일에 연이어 수구 대신들을 파면해야 한다는 상

---

68) 외방통신, 『독립신문』, 1897년 6월 15일.

69) 외국통신, 『독립신문』, 1897년 2월 18일.

70) The Empress-dowager and the Crisis in China, *The Independent*, October 25, 1898.

소를 올렸다. 독립협회의 상주문에서 수구 대신들은 청조 완고당과 같은 임금을 욕보이고 인민의 권리를 해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기본인 흥범 14조를 흔들며 망국을 이끄는 장본인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sup>71)</sup>

이같이, 독립신문은 서태후를 비롯한 청조 완고당이 변법을 진압한 일을 들어 자국 보수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장하는 한편, 광서제가 용단 있게 진보를 추진하지 못하다가 결국 위태로운 처지에 이르게 된 사례<sup>72)</sup>를 들어 고종에게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고종은 독립신문의 주장을 수용하여 10월 12일 독립협회가 공격했던 수구 대신들을 모두 면직하였으나, 동시에 독립협회 세력의 확장을 경계하면서 지정된 장소에서 토론하는 정도로 활동을 제한하려 하였다.<sup>73)</sup>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간사한 무리들이 참조하여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며 군주를 현혹한 결과<sup>74)</sup>로 간주한다고 하여 더욱 강경한 상소를 올렸다.<sup>75)</sup>

요컨대 독립신문은 수구파 대신을 규탄하는 입장에서, 청조의 완고당을 비판하면서 그들에 대한 반감, 혐오, 불만을 드러냈고 그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의 근대화를 고려한 의도가 있겠지만, 청조 완고당의 행적을 과장하여 수구파 정적을 공격한 행위는 독립협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주한일본공사는 연좌제의 부활에 반대하는 독립협회의 행동을 정적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였고<sup>76)</sup>, 동시에 독립협회가 조선 정계에서 지나치게 날뛰어[跳梁] 야심이 가득하고 공명심도 심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sup>77)</sup> 이밖에도 회장 윤치호가 궁궐에 난입하고자 하여 고종의 질책을 받기까지 하였다.<sup>78)</sup> 이처럼 고종의 권위를 위협하는 행위

71) 尹致昊等疏, 『비서원일기』(35), 고종 35년 10월 7일, p.062b; 尹致昊等疏, 『비서원일기』(35), 고종 35년 10월 11일, p.069b; 慶賢秀等疏略, 『고종실록』(38), 고종 35년 10월 6일, p.013a 등을 참조한다. 이하 『秘書院日記』, 서울대 규장각본, 1895년 11월-1905년 2월을 인용하는 경우 “『비서원일기』(책수)”로 약칭한다.

72) 명담, 「청국 사정」, 『독립신문』, 1898년 9월 29일.

73) 詔, 『비서원일기』(36), 고종 35년 10월 20일, p.014a.

74) 尹致昊等疏, 『비서원일기』(36), 고종 35년 10월 25일, p.027b.

75) 신용하 저,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76, p.360.

76) 「獨立協會의 大臣 排斥에 관한 詳報의 件」, 1898년 11월 8일 發, 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2, 1986, pp.24-32를 참조한다.

77) 김용구 편, 『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叢書』, 아세아문화사, 1995, pp.409-410.

78) 詔, 『고종실록』(38), 고종 35년 10월 12일, p.017a.

는 훗날 독립협회가 탄압받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뒤 독립협회는 단속 대상이 되었고, 잇따라 독립신문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다. 이 시점에 이르러 그들은 청조 완고당을 비판하면서 변법 운동의 자체 및 광서제, 개혁파 등을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양분화된 태도를 이루는 동시에 변법을 회고하기 시작하였다.

“(청국 황제가) 중흥지업을 이루려고 하시다가 불행히 일이 뜻과 같지 못하여 간세배가 외국을 빙자하여 황제의 권세를 빼앗고 개화에 유의하던 강유위 등 충량한 신하들을 백반 모해하여 몇 해 적공이 헛되었으니 청국을 위하여 누가 개탄치 아니리오”<sup>79)</sup>

“청국 광서 황제가 성군의 자품으로 중흥지업을 이루고자 하시다가 불행히 완고당 간소배의 흉모에 빠지사 몸소 무한한 곤경을 지내시고… 개화당들은 혹 비명에 죽으며 혹 외국에 몸을 보존하니 청국을 위하여 개탄하며 착하고 밝은 임금을 위협하고 그 임금께 충성하고 그 나라를 편히 하려던 사람들을 도로 역당으로 구박하니 청국의 역적은 그 완고당들이로다”<sup>80)</sup>

“청국 광서 황제의 활달하신 도량과 탁월하신 지혜로 정신을 가다듬고 정치를 밝게 하사 확연한 용단은 법도를 일신하게 하고 영결한 위풍은 수치를 쾌설하고자 하여 이에 강유위씨의 몇몇 신하로 더불어 …개명의 기초를 굳게 세우려다가 서태후가 완고당을 신임하고 만단으로 저희하며 일만 여의하게 못 될 뿐만 아니라 황제께서 곤액 중에 들었으니…광서 황제와 청국 인민을 위하여 극히 개탄할 것이요”<sup>81)</sup>

위의 기사는 모두 무술변법과 그 주도자들을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완고당이 그들을 모해하고 변법을 파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변법의 실패를 애석해하였다. 이러한 독립신문의 경향은, 우선 국왕이 독립협회를 역적으로 선포한 상황<sup>82)</sup>에서 독립협회가 자신의 진의를 공고히 한 것과 다

79) 명담 「청국 형편 문답」, 『독립신문』, 1899년 1월 11일.

80) 명담 「청국 황제의 개화」, 『독립신문』, 1899년 1월 25일.

81) 명담, 『독립신문』, 1899년 10월 2일.

름없다고 할 수 있다. 고종 황제가 중흥의 대업을 선포하고 국가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간신배가 세계의 대세를 거스른 채 사육에 빠져 나라를 망친다<sup>83)</sup>는 독립협회의 현실 인식은, 성균 광서제가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중흥을 이룩하려 하였으나 완고당의 방해로 실패하였다는 무술변법 평가와 다르지 않았다. 즉, 독립협회의 운동이 사실상의 실패로 돌아간 실장에서, 청조의 변법을 빌려 자신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여기에서 독립협회의 회장이자 독립신문 주필이었던 윤치호가 자신의 일기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회원 열의 아홉이 부패했음을 토로한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sup>84)</sup> 물론 그의 사건이 독립신문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좌절에 대한 언론지 표면상의 설명과 내심이 같지 않았음은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독립협회 금지 후에도 독립신문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공정한 법률을 행하고 정부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정작 자국민을 믿지 못하고 편안케 하지도 못하였다는 비판<sup>85)</sup>은 이전 공격적인 성향의 언사보다 약간 완화된 것이지만 이 역시도 정부를 비판한 것이었다. 이 같은 입장은 신문사 직원의 연행<sup>86)</sup>과 강제 폐간으로 이어졌다.

독립신문도 동양 대세와 대한 전국을 위해 ‘극히 개탄 염려’한 적이 있었다. 물론 변법이 실패하고 같은 처지에 처하는 청조에 대해 일종의 동정적인 시각이 있었음에도, 서구 국가를 대상으로 내는 영문판에서는 동양 이익에 관한 명확 표현을 찾기 힘들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독립신문이 조선과 동양의 이익을 위한 사고를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독립협회 금지 후에 독립신문이 완고당을 계속 비판하는 데에 무술변법과 그 주도자들을 극찬하였고, 변법의 실패로 청조에 대해 동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러한 처지를 애석하였다.

이처럼 독립신문의 변법 보도와 평가는 독립협회 운동의 전개와 밀접한

82) 勅語, 『비서원일기』(38), 고종 35년 12월 25일, p.024a; 沈相禧疏略, 『고종실록』(39), 고종 36년 1월 2일, p.004a를 참조한다.

83) 명담, 「문명은 세계 바람과 조수」, 『독립신문』, 1898년 11월 11일.

84) 윤치호 저 박미경 역, 『윤치호 영문일기』 4권, 국사편찬위원회, pp.199-200.

85) 명담, 『독립신문』, 1899년 10월 5일.

86) 잡보, 「曆曆事端」, 『황성신문』, 1899년 4월 4일; 잡보, 「被捉旋放」, 『황성신문』, 1899년 7월 19일 등을 참조한다.

관계가 있었다. 해당 신문은 청조에서 언론 개방의 조치가 이루어지자, 이를 황제의 개명정책으로 칭찬하여 청조의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자신들의 정당성을 변명하고 언론 자유를 주창하여 궁극적으로는 독립협회의 정치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변법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한편 서태후 일파에 의해 무술정변이 발생하자, 보도의 초점은 변법 개혁 자체에서 보수파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갔다. 여기에도 청조 완고당의 행적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반감, 혐오, 불만을 가졌으며, 조선 수구파와 관련시켜 그들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아가 독립협회 운동이 좌절된 이후에는 광서제와 개혁파를 한층 치켜세움으로써, 간접적이거나 자신들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비록 표면상 국가와 동양의 이익을 함께 추구한다고 하였지만, 독립협회의 변법 인식 속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차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청조의 무술변법과 정변이 조선 독립협회의 정치 활동을 위한 일종의 여론 도구가 되었던 셈이다.

## 2. 황성신문의 변법 관찰 및 인식 기초

독립협회의 정치 운동과 함께 이에 참가하였던 일부 혁신유학자들도 문명개화와 사회계몽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sup>87)</sup> 그들은 독립협회의 경성신문<sup>88)</sup>을 계승하여, 1898년 9월 5일부터 황성신문을 발간하였다. 황성신문은 당시 국민의 지식(智識)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혁신유학자층의 활동을 보여준 물론, 사대부층까지 저변을 넓히려는 독립협회 일각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신문은 독립협회의 지원을 받아 창간되었지만 내용은 사장 남궁억 등 유학자들에 의해 편집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대부층을 대상 독자로 삼고 신문에 기고하는 혁신유학자들의 정치적 주장을 표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황성신문』은 청조 정세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창간한 지 얼마 되지

87) 김세한 한서남궁억선생기념사업회 편, 『한서 남궁억 선생의 생애』, 동아출판사, 1960, p. 99.

88) 제11호 이후 대한황성신문으로 바꿨다.

않은 9월 12일에 이미 청국공사의 인사 변동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이는 조선에 대한 평등 외교를 선언한 변법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9월 21일자 잡보인 「청국총리아문의 감몽(酣夢)」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청국 황제가 근일은 개혁에 예의[銳意, 굳은 의지로<sup>89)</sup>: 인용자]한 다는 말은 세상이 들은 바이다. 애초에 우리 대항에 사신을 파견하려고 할 때에 총리아문대신이 그에게 친인장[親任狀, 국서를 말함: 인용자]을 인증하고자 하였는데, 대신은 구례와 같이, 대청국황제라는 문자는 위에 높게 적고 조선헌제라는 문자는 (뒤의 행에) 세자를 띄고 적었는지라 황제가 바로 책망하여 말하기를: ‘조선국이 우리의 속방이 아니요. 벌써 독립국이니라 무슨 까닭으로 다른 외국과 같이 동일한 예식을 안 이용하지 않는가? 짐은 이와 같이 겉치레[浮華]한 필지에서 존귀 위대[尊貴 偉大]함은 짐이 결단코 받지 않고자 한다. 짐이 원하는 바는 실질적인 존귀 위대이라.’ 하고 대신을 깊이 책망하였더니, 아, 그들의 어리석음은 달콤한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sup>90)</sup>

위의 내용은 청 정부 내에서 평등 외교의 전개를 결정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조선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광서제와 여전히 속국으로 여기고 있는 총리아문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전자의 굳은 의지를 칭찬하는 한편 후자의 오만을 비판하였다. 물론 해당 기사는 청조 내부의 의사결정 장면을 보여주면서도 정작 정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종의 창작 혹은 각색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궁당안(淸宮檔案)을 검토한 모해건의 연구에 따르면 광서제는 애초 ‘오랜 속국에 은혜를 베푸는[朝廷恩遇舊藩]’ 마음을 지니고 있어 주조선 공사가 아닌 흠차대신(欽差大臣)을 지명하려다가, 조선 총세무사(總稅務司)를 담임한 영국인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의 반발을 사서 이러한 생각을 바꿨다.<sup>9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광서제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sup>92)</sup> 공

89) 『한어대사전』(11), p. 16666.

90) 외국통신, 「淸國總理衙門의 酣夢」, 『황성신문』, 1898년 9월 21일.

91) 茅海建, 앞의 책(2011), pp.455-457을 참조한다.

사의 북경 주재를 허락하였으며,<sup>93)</sup> 총리아문의 반대 속에서도 국서를 수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평등 외교를 성사시킨 것은 사실이다.<sup>94)</sup> 황성신문의 광서제 칭찬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과 함께, 여전히 낮은 관념을 고수하는 청조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였다. 일례로 9월 12일의 논설은 청조의 완고함이 스스로를 무너트리고 장차 이웃 나라까지 해를 끼치리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감추지 않았다.

“청국은 지금까지 구법을 개정하지 않고 명나라의 잔혹한 제도를 답습 이용하여 백성의 고통을 묻지 않고 국가의 흥망을 모르며 하지만 대국이니 중화니 칭하고 외국은 오랑캐라 금수라고 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완고하여[驕傲愚頑] 스스로의 과실을 개정하지 않아 도처에 박대와 모욕을 당하고 지금껏 세계 형편을 살피지 않으며 일본의 원한을 갚는다고 칭하고 다른 나라에 땅을 빌려주며 항구를 주어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호랑이와 늑대를 이끌어 자위하며 인민을 착취하여 매관매직하는 구습과 실속 없는 꾸밈을 숭상하는 나쁜 분위기를 개량하지 못하니 몇 년이나 지나면 장차 사분오열하여 이웃 나라까지 해독을 끼칠지니 이는 완고를 스스로가 의거하고 서구의 法을 행하지 않는 폐단이라고 어찌 개탄하지 아니리오”<sup>95)</sup>

여기서는 자신을 중화로 타국을 오랑캐로 여기는 오만함이 남아 있으며, 과거의 습관과 형식에 얽매인 나머지 열강의 침략을 자초한 최악해진 나라로 청조를 묘사하였다. 마찬가지로 9월 17일의 논설에서는 미국 선교사 앨런(Andrew Young John Allen)이 당시 청조의 교만함, 수구함과 어리석음을 비판하였던 것을 인용하였다. 앨런의 청조에 대한 생각은 채이강

92) 胡思敬, 『戊戌履霜錄』 권2, 南昌退廬刻本, 1913, p.15. “上曰：朝鮮既有自主之權，即爲平等之國”

93) 北平故宮博物院編 編,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下冊) 권52, 文海出版社, 1970, p.992. “所有派使, 遞國書, 議約, 韓使來京, 遞國書, 覲見, 均準行”.

94) 청국 총리아문이 한·청 수교를 지지하려고 했던 과정은 權赫秀, 「唐紹儀在近代朝鮮十六年活動考述」, 『韓國研究論叢』 23, 2009, pp. 300-307을 참조한다.

95) 논설, 『황성신문』, 1898년 9월 12일.

(蔡爾康)과 함께 번역 편집한 중동전기본말(中東戰紀本末)이라는 책에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청조 사람들이 가진 8가지 부정적 습관[오만, 어리석음, 두려움, 속임, 포학, 탐욕, 완고함, 게으름]을 나열하여 청조의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sup>96)</sup>

청조를 맹렬히 비판하는 앨런의 논조와 달리, 황성신문은 청조 변법의 조치를 인정하는 한편 청조의 보수성을 비판하였다. 황성신문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모순은 혁신유학자와 독립협회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달리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각자가 다르게 표현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우선 독립협회와 깊은 인연<sup>97)</sup>이 있었던 황성신문은 청조를 사례로 들며 조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수단으로써, 독립신문과 함께 독립협회 정치 요구에 이로운 여론 환경의 조성을 전개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황성신문은 청조의 현실을 비판한 앨런의 목소리를 다시 빌려 “내외가 일심으로 하고 조야가 일덕(一德)으로 하여 그들이 완고하여 고습을 답습하고 시의를 위반하는 자는 일제히 내쫓아 멀리하면 정치 교화가 자연히 밝아 해내(海內)가 평안하고 인민이 부강할지라”<sup>98)</sup>고 제시하여 조선인들에게 경고하였다. 청일전쟁의 패배에 대한 앨런의 평가를 들먹이며 조선 조정과 인민, 나아가 전국이 한마음으로 보수적이고 완고한 이를 멀리하라 권고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권고의 대상은 조정과 민간 혹은 안과 밖, 즉 해당 신문을 읽는 양반 사대부와 조선 당국이고, 반면에 보수적이고 완고한 이들은 독립협회에 의해 수구로 공격받은 보수세력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국의 수구파를 타자로 하며 청조의 사례를 통해 양반 사대부와 정부 관원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쟁취하려던 것이었다.

청조의 사정을 들어 자국 정부를 비판함은 9월 12일자 논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해당 글은 먼저 청조의 수구적 관념을 지적한 다음 이를 조선 정부에도 적용하였다.

96) 王林, 「‘中東戰紀本末’與甲午中日戰爭」,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4, 2009, p.62.

97) 앞글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황성신문은 독립협회의 경성신문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장 남궁억이 독립신문 영문판의 편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김세한 한서남궁역선생기념사업회 편, 앞의 책(1960), p.91.

98) 논설, 「淸日兩國論」, 『황성신문』, 1898년 9월 17일.

“우리나라는 청국을 흠모하여 모든 일을 본뜨고 외국은 오랑캐라고 하기에 본국은 소중화(小中華)이라고 하기에…온갖 모질고 오만한 행동이 청국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여…인민을 개명시키거나 외국 사정을 알리거나 국가를 보전할 사업은 추호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이 정해지지 않아 새로운 표제와 낡고 썩은 내용[外新內舊]을 담은 생각을 짐작하기 어려울뿐더러 수시로 변함에 딱히 어린이의 장난과 같다.”<sup>99)</sup>

조선 정부의 보수성이 청조와 비슷하다는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청조 비난이 자연스럽게 자국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청조 폄하를 통해 조선의 현실을 폭로한 독립신문 9월 7일자 논설과도 유사하다. 게다가 황성신문은 독립협회가 연좌제 회복을 반대하며 수구 대신들을 공격하자, 또한 서태후의 유신 인사 처형에 대하여 외국인이 북경 정부를 무도하다고 평가한 보도를 내보냈다.<sup>100)</sup> 아울러 청 조정이 개혁파를 극형에 처함은 문명의 도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조차 아니라는 일본 공사의 말<sup>101)</sup>을 기재하여 각국이 인정하는 ‘무도한 청 정부’를 사례로 연좌제 회복을 반대하는 독립협회를 지원하려 하였다. 이처럼 황성신문의 청조에 대한 비판 이면에는 사대부층에게 독립협회의 활동과 그들의 정치적 주장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초기의 황성신문은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청조의 사례를 들며 독립협회의 정치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황성신문은 조선에 대한 평등 외교를 목표로 하는 변법 조치를 칭찬하고 아울러 청조와의 평등한 조약체결을 환영하는 독자적인 논술을 하여, 혁신유학자의 정치 주장과 이익을 표현하였다. 이는 ‘완전 대등’을 견지하는 독립신문의 입장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독립신문은 조선에 거주하는 청조 인민이 범법하였을 경우 청조 영사관이 청조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마찬가지로 청조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이 범법하였을 때는 조

99) 주석95와 같다.

100) 외국통신, 「北京頑固黨의 勢力」, 『황성신문』, 1898년 10월 12일.

101) 외보 照騰, 「日本이 對淸方針의 一斑」, 『황성신문』, 1898년 10월 28일.

선 영사관이 조선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는 제5항 조목<sup>102)</sup>을 본질적으로 불평등 조약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조선이 청조의 모든 무역항에 영사관을 설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상호 영사재판권 자체가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럴 지경이면 차라리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는 주장까지 하였다.<sup>103)</sup> 즉 특권을 모두 없애고 완전한 독립권을 누리는 것이었다.

반면 황성신문은 청조에서의 판매 가능한 아편을 조선에서 금지하고 아편을 가져 조선에 들여간 청조 사람을 엄격히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제2항 조목<sup>104)</sup>에 주목하여, 이를 조선의 국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선 사회의 폐단을 뿌리 뽑기[癸絕風清]에 이로운 조치로 간주하였다. 나아가 조약체결 이후 “친밀하고 형제나 다름없다”<sup>105)</sup>는 양국 관계를 독립신문과 다르게 전망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정묘호란 이후 조선과 후금(後金)이 맺은 이른바 ‘형제의 맹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국은 이후 서로 맹약을 준수하여 각각의 영토를 지키고,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도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던 것이다.<sup>106)</sup> 그렇기에 황성신문이 바라는 형제와 같은 양국의 관계는 곧, 응당 지위가 평등함은 물론 서로의 내정, 독립, 국정 등을 충분히 존중하는 관계와 같다. 이는 조선의 주체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영사재판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독립신문의 주장과는 대비된다.

물론 치외법권을 폐지하고 본국 경내에서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할권을 누린다는 주장은 당시 독립신문이 열강의 국권 침탈을 보아 조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제시했던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을 막론하고 가해자의 국적에 따라 해당 나라의 법률로 처리한다는 조목은 한·청 양국이 대외로 체결했던 조약에서 보편적으로 규정된 정도<sup>107)</sup>로 일종의 관례가 되었으므로, 치외법권을 폐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102) 「韓、淸通商條約」, 『고종실록』(39), 고종 36년 9월 11일, p.065a.

103) 명담, 「유지각한 친구의 편지」, 『독립신문』, 1898년 11월 2일.

104) 「韓、淸通商條約」, 『고종실록』(39), 고종 36년 9월 11일, p.066a.

105) 논설, 「鴉片論」, 『황성신문』, 1898년 9월 22일.

106) 『인조실록』(15), 인조 5년 3월 3일, p.050b.

107) 이 원칙은 당시 서구 열강은 물론이고 청조가 페루와의 통상조약(1874), 브라질과의 화호통상조약(1881), 조선과 덴마크와의 한정수호통상조약(韓丁修好通商條約, 1902)에서

라고도 볼 수 있다. 독립신문에 비해, 황성신문이 기존의 조목 개념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양국 관계를 새롭게 재해석한 것은 일종의 ‘격치(格致)의 실학’이 가지는 특징이자 혁신유학자들의 성격이기도 하다. 또한 혁신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독립협회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정부와의 관계에서 온건한 태도를 보였으니, 이는 관민공동회 해산 권유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당시 독립협회는 수구 대신을 파면시켰더라도 강경한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며 고종과 대립하였고 심지어 탄압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에 황성신문은 정부가 인민의 요청을 이미 점차 실행한 대신, 인민은 역시 정부의 정령에 따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설을 냈다.<sup>108)</sup> 즉 당시의 현실을 고려한 일종의 온건한 타협 혹은 권유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황성신문은 비록 독립협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어느 정도는 혁신유학자층의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어 그들의 능동성을 발휘하였다.

한편 청조에서 무술정변으로 변법이 무산되고, 국내에서도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 황성신문의 청조 정세 보도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내용상 지방 관원에게 비용을 절감하라는 요구밖에 없는 서태후의 조치에 대해서, 그(서태후)의 개혁은 웃음거리가 될 만큼 어리석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sup>109)</sup> “대개 외교에 관한 일에 본래로 경력이 전혀 없다”<sup>110)</sup>는 허응규(許應騷)가 민절총독(閔浙總督)을 담당하고 이탈리아의 삼문만(三門灣) 개항 요구를 처리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전망하였다.<sup>111)</sup>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법의 좌절 속에서

도 적용되었다. 王鐵崖 編, 『中外舊約章匯編』 1冊,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1957, p.339-342; 394-397; 國史館, 『國史館 國史編纂委員會 編, 『구한말조약회찬』 하권, 國史館, 1965, p.249 등을 참조한다.

108) 논설, 『황성신문』, 1898년 12월 26일.

109) 외보, 「所謂西后改革」, 『황성신문』, 1899년 8월 11일.

110) 외보 照膽, 「伊國要求와 閔浙總督」, 『황성신문』, 1899년 3월 23일.

111) 사실 허응규는 1897년에 ‘총리각국사무아문행주(總理各國事務衙門行走)’라는 관직을 맡았고 민절총독을 담당한 이래에 이탈리아의 강요를 타당하게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도오(三都澳)와 고랑서(鼓浪嶼)를 주동적으로 개방하여 자주적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외침과 침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였다. 따라서 황성신문의 추측은 응당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하고 허응규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趙爾巽等編, 『清史稿』, 「本紀二十四 德宗本紀二」, 清史館, 1927, p.5; 熊秋良 李玉, 「從三都澳到鼓浪嶼—閩浙總督許應騷涉外政務觀考論」,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6, 2014, pp.84-85 등을 참조한다.

도 청조가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군대를 정비하며 황태후의 수렴청정 하에서 대신들이 분발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하기도 하였다.<sup>112)</sup> 심지어 서태후는 ‘간악한 부인’에 불과하다는 청의보(淸議報)의 비난에 대해서는, 서태후가 수십 년 동안 청조 내우외환 국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던 실적을 들어 반박하며 이것은 강유위와 양계초가 정적인 서태후를 공격하기 위함일 뿐이라는 비평을 남겼고 나아가 서태후를 내우외환 속에서도 군을 통제하고 민심을 사로잡은 영웅적 여성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sup>113)</sup> 즉 무술정변 이후의 청조 정세에 대한 관찰은 서태후 일파가 한 실적을 기준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서태후 일파를 완고당이나 수구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신-구의 구분을 강조하였던 독립신문과는 차별화되는 태도였다. 파벌이 아닌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서태후의 개혁을 웃음거리로 간주한 것도 어디까지나 보수파에 대한 분노가 아닌 개혁의 유명무실이나 불철저함을 지적한 것에 가까웠으며, 허응규는 외교 경험이 부족하리라는 추측은 청조의 인사 변동을 평가하는 의거가 되었다. 서태후가 내우외환 국면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인민과 조정이 서로 다투는 조선의 상황과 대비하여, 내우외환에서 힘써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청조의 모습에 감명받아 내린 평가이기도 하다.

이처럼 소속이나 파벌이 아닌 실제 행동에 기반하여 인물의 공과를 평가했던 것은, 핵심 독자층이었던 혁신유학자층의 성격,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 당시 혁신유학자들이 여전히 신봉하였던 성리학 등 전통적인 유학 사상은 독립신문이 비판했던 구학문에 속하였고, 사장이었던 남궁억 또한 독립협회의 주요 인물이었으나 동시에 ‘남궁 고집’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 혁신유학자는 해석을 통해 양반 사대부와 사상적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입장, 관념을 민중에게 전달하여 발언권을 쟁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에 서태후의 실적 및 한·청 관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서술을 하고 심지어 청의보의 발언에 격렬하게 반박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112) 외보, 「支那足兵」, 『황성신문』, 1898년 12월 19일

113) 외보, 「北京近情」, 『황성신문』, 1899년 7월 17일.

또한 혁신유학자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실사구시 정신을 발휘하여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문화와 교육 등 조선의 근대화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더욱이 황성신문의 창간 종지부터 진정한 유교 정신을 기반으로 서양 문명을 수용하는 것이었다.<sup>114)</sup> 그렇기에 황성신문의 혁신유학자들은 독립신문측과 달리 신구 구분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대 정비와 국내 안정에 주력한 수구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청조의 각종 정책을 관찰하면서도 이어졌으니, 實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청조의 부패를 심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예비 입헌의 준비, 교육과 실업의 장려, 군대 회복, 사회 풍속의 개선 등 조치의 실효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sup>115)</sup> 따라서 신축 신정 이후 비로소 황성신문의 논조가 변화하였다는 노관범의 주장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조선 혁신유학자들의 청조에 대한 판단 기준은 특정한 세력이 아닌 국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황성신문은 창간 시기부터 조선과의 평등 외교라는 변법 조치에 특히 주목하였고, 이러한 관심의 배후에는 양국이 형제와 같이 친밀한 가운데 상호 독립을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구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정부 비난보다는 양자의 타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외적으로는 조선의 독립자주를, 내적으로는 민권 강화를 강경하게 외쳤던 독립신문과는 달랐다 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독립협회의 지원 속에서 발간되었던 만큼, 청조를 폄하함으로 정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변법 소식을 인용하여 자국 관민을 권고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무술변법과 독립협회 운동이 잇따라 좌절한 가운데, 황성신문은 보수파에 대한 공격보다는 어떠한 정책이 청조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한마디로 당시의 혁신유학자층은 변법으로 대표되는 정치개혁을 지지하면서도, 보수적인 정부가 주도하는 정국의 안정 및 온건 개혁책에도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

114) 김현우, 「'황성신문'의 실학 인식」, 『인문학연구』 52, 2016, p.114.

115) 李細珠, 앞의 논문(2012), pp.82-87.

하여 광서제 변법을 칭찬하며 총리아문의 행위를 풍자하거나 서태후가 했던 실적을 가져 청의보의 비난을 반박하며 그들의 행위를 비난 혹은 어떤 부분은 인정하는 등 다양한 태도를 보여줬다.

### Ⅲ. 무술변법에 대한 조선 신문의 인식과 특성

#### 1. 무술변법 보도의 전반적 특성

신축 신정에 이르기까지 총 105편의 기사가 작성되었다. 서사에서 보이는 초점과 보도 경향의 전환은 무술정변과 독립협회 운동의 실패를 분기점으로 나뉜다. 우선 무술변법 시 변법에 관해 작성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표 3-1> 무술변법 시 변법 기사

번호	제목	신문명	날짜	기사 유형	분야
1.		독립신문	1898.6.23	전보	군사
2.	원세개 교련	독립신문	1898.7.8	전보	군사
3.	일인 유람한 것	독립신문	1898.7.9	잡보	군사
4.	남경학교	독립신문	1898.7.13	외국통신	교육
5.	청황 관병식	독립신문	1898.7.29	외국통신	군사
6.	북경 대학교	독립신문	1898.8.16	외국통신	교육
7.	청국 공사	독립신문	1898.8.18	잡보	정치
8.	청국 교육	독립신문	1898.8.25	외국통신	교육
9.	남창 교육	독립신문	1898.8.26	외국통신	교육
10.	은행 실시	독립신문	1898.8.26	외국통신	경제
11.	일청 교제	독립신문	1898.8.27	외국통신	정치
12.	The Chinese Vernacular Press	독립신문(영문)	1898.9.3	Late Telegrams	정치
13.	실효가 있을는지	독립신문	1898.9.7	명담	정치
14.	淸使改選	황성신문	1898.9.12	잡보	정치
15.	淸日兩國論	황성신문	1898.9.12	논설	정치
16.		황성신문	1898.9.12	논설	정치
17.	淸國의 新任駐日公使	황성신문	1898.9.14	외국통신	정치
18.	청국 학도	독립신문	1898.9.19	외국통신	교육
19.	淸國總理衙門의 酣夢	황성신문	1898.9.21	외국통신	정치
20.	유지각한 친구의 글(전전호 연속)	독립신문	1898.9.21	명담	정치
21.	鴉片論	황성신문	1898.9.22	논설	정치
22.	淸國兩公使上海에 着	황성신문	1898.9.27	외국통신	정치
23.		매일신문	1898.9.28	논설	정치
24.	청국 학도	독립신문	1898.9.29.	외국 통신	교육

<표 3-1>에 따르면 무술정변 전<sup>116)</sup>까지의 기사 24편 가운데, 독립신문[영문판 1편을 포함한 16편] 기사 수가 67%[16편], 황성신문 기사 수가 29%[7편]로 합쳐서 96%에 달하였다. 시간적으로는 8월 중순 이후에 나온 기사 수가 19편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이처럼 실제 사건보다 기사들이 늦게 작성된 이유는 황성신문이 다소 늦게 창간된 것[1898년 9월 5일]과 관계있다. 변법의 반포부터 조선 매체에 기재되기까지 걸린 시간 지연에 대해서도 논할 만하다. 남경학교의 건립, 청국공사의 파견이 결정되기부터 조선 언론계가 그것을 기재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10일 기간을 하한으로 하며, 청조 학도가 선별되고 그 사실이 언론지상에 기재될 때까지는 30일 상한 기간이 걸렸다. 이렇게 본다면, 기사들은 대체로 10-30일이 걸렸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다수의 기사가 8월 중순 이후 보도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사 유형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잡보 기사[외국통신, 전보, 잡보 등을 포함]는 18편으로 전체의 75%에 달했으며 논설 기사[명담, 논설 등을 포함]는 무술변법을 다소간 언급하고 평가한 6편으로 9월 7일 이후에 나타났다. 논설 기사가 늦게 출현한 원인은 황성신문의 창간, 시간 지연 등 객관적인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독립협회와 개혁파의 개혁 인식 차이로 무술변법의 조치에서 자신 정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을 채택하고 재편집할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상으로는, 정치에 관한 기사는 13편으로 전체의 54%를 점하였고 다음으로 교육[6편], 군사[4편], 경제[1편]는 전체의 25%, 17%, 4%를 각각 차지한다. 정치 영역에 관심을 많이 둔 것은 정치 단체인 독립협회의 속성 및 지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무술변법 시 보도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시간 지연, 창간 시간, 내용 채택 등 요인으로 인해 변법 보도는 8월 중순 이후에 많이 나타났고 변법의 평가와 인식 등도 늦게 형성되었으며 정치 영역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116) 서태후가 9월 21일에 훈정(訓政)을 공포하며 정변을 일으켰다. 조선 신문계는 9월 28일쯤 되어서야 정변에 관한 소문을 알게 되었다. 본고는 조선 신문계가 대체로 이 정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무술정변의 소식을 들은 후, 신문계는 청조의 형세를 더 적극적으로 주시하게 되었고, 이때의 변법 기사가 다음과 같다.

<도표 3-2> 무술정변 후 청조 정세에 관한 기사

번호	제목	신문명	날짜	기사 유형	관련 사건	비고
1.	북경 큰 일	독립신문	1898.9.27	전보	광서제 봉환	풍설 포함
2.	淸國現狀의 騷擾	황성신문	1898.9.29	외국통신	광서제 생사	풍설 포함
3.	청국 사정	독립신문	1898.9.29	명담	광서제 생사와 봉환	
4.	北京傳說	황성신문	1898.10.3	잡보	광서제 생사 강유위 도망	전설 포함
5.	伊藤博文侯清帝에 拜謁	황성신문	1898.10.3	외국통신	이등 방문	
6.	청국 사정	독립신문	1898.10.3	명담	광서제 생사	풍설 포함
7.	P. & T. Times Sept. 24	독립신문 (영문)	1898.10.4	Peking News	광서제 생사 강유위 도망	풍설 포함
8.	Escape of Kang Yuwei	독립신문 (영문)	1898.10.4	Peking News	강유위 도망	
9.	이등씨 의견	독립신문	1898.10.5	외국통신	이등 방문	
10.	北京政變續聞	황성신문	1898.10.6	외국통신	개혁파 처치 광서제 폐립	풍설 포함
11.	Situation in China	독립신문 (영문)	1898.10.6	Local Items	이등 방문 강유위 도망	
12.	청국 황제	독립신문	1898.10.7	전보	광서제 생사	풍설 포함
13.	Kang Yu-wei and the British Minister	독립신문 (영문)	1898.10.8	Late Telegrams	강유위 교섭	
14.	北京政變續聞	황성신문	1898.10.10	외국통신	강유위 도망 광서제 폐립	
15.	청국 정부 변혁	독립신문	1898.10.10	전보	강유위 도망	
16.	청황 자복	독립신문	1898.10.10	전보	원세개 밀고 설	풍설 포함
17.	淸客投書	황성신문	1898.10.11	외국통신		
18.	청황 생사	독립신문	1898.10.11	전보	광서제 생사	소문 변명
19.	北京頑固黨의 勢力	황성신문	1898.10.12	외국통신	개혁파 처치	
20.	淸國政變의 續聞	황성신문	1898.10.13	외국통신	원세개 밀고 설	評說 포함
21.	康有爲氏의 幸運	황성신문	1898.10.15	외보	강유위 도망	
22.	Peking Situation	독립신문 (영문)	1898.10.15	Miscellaneous news	광서제 생사	풍설 포함
23.	北京舉動	황성신문	1898.10.18	외보		
24.	親睦益厚	황성신문	1898.10.20	외보		풍설 포함
25.	九月三十日北京發	황성신문	1898.10.20	전보	광서제 치료	풍설 포함
26.	十月四日上海發	황성신문	1898.10.20	전보	광서제 생사 원세개 밀고 설	풍설 포함
27.	강유위 외화	독립신문	1898.10.20	외국통신	강유위 도망	
28.	Interview with Kang Yu-wei	독립신문 (영문)	1898.10.20	Special Telegrams	강유위 인터뷰	
29.	九月二十三日上海發	황성신문	1898.10.21	전보	광서제 생사	풍설 포함
30.	청황과 신의 문답	독립신문	1898.10.21	명담	이등 방문	

31.	同七日發	황성신문	1898.10.22	전보	광서제 생사	소문 변명
32.	북경 소문	독립신문	1898.10.22	외국통신	광서제 생사	소문 포함
33.	英國이 淸國에 對한 請願	황성신문	1898.10.24	外報 照膽	개혁파 처치 광서제 구금	
34.	淸國政變續聞	황성신문	1898.10.24	외보	개혁파 처치	풍설 포함
35.	The Empress-dowager and the Crisis in China	독립신문 (영문)	1898.10.25	Miscellaneous news		풍설 포함
36.	北京 通信	황성신문	1898.10.25	外報 照膽		
37.	완고 난국	독립신문	1898.10.26	잡보		
38.	Kang Yu-wei	독립신문 (영문)	1898.10.27	Late Telegrams	강유위 도망	
39.	日本이 對淸方針의 一斑	황성신문	1898.10.28	外報 照膽	개혁파 처치	
40.	청국 황제	독립신문	1898.10.29	외국통신	광서제 치료	
41.	新政은 全廢하고 舊制가 復活이라	황성신문	1898.11.2	外報 照膽	개혁파 파면	
42.	유지각한 친구의 편지	독립신문	1898.11.2	명담	한청 조약 체결	
43.	Kang Yu-wei	독립신문 (영문)	1898.11.3	Late Telegrams	강유위 도망	
44.	Chinese refugees in Japan	독립신문 (영문)	1898.11.3	Late Telegrams	강유위 도망	
45.		독립신문 (영문)	1898.11.3	Peking News	광서제 생사	풍설 포함
46.	維新黨의 蒙赦	황성신문	1898.11.3	外報 照膽	유신당 사면	풍설 포함
47.	북경 통신	독립신문	1898.11.3	외국통신	광서제 치료, 페립	풍설 포함
48.	북경 통신	독립신문	1898.11.4	외국통신	광서제 페립	
49.	Kang Yu-wei in Tokyo	독립신문 (영문)	1898.11.12	Special Telegrams	강유위 도망	
50.	강유위씨 피란	독립신문	1898.11.18	외국통신	강유위 도망	
51.	Kang Yowei	독립신문 (영문)	1898.11.19	Special Telegrams	강유위 도망	
52.	A letter from Kang	독립신문 (영문)	1898.11.19	Miscellaneous news	광서제 구원 강유위 도망	풍설 포함
53.	청국 황제	독립신문	1898.11.21	외국통신	광서제 페립	풍설 포함
54.	支那足兵	황성신문	1898.12.19	외보		
55.	Critical Situation in China	독립신문 (영문)	1898.12.22	Late Telegrams	강유위 체포	풍설 포함
56.	Persecution of Chinese Reformists	독립신문 (영문)	1898.12.22	Late Telegrams	개화당 체포	풍설 포함

<도표 3-2>에 따르면, 독립협회 해산 전까지 기사 56편이 작성되었는데, 전 단계의 24편에서 233%로 증가하여 변법과 청조 정세에 관심을 크게 두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신문 기사[영문판 16편을 포함한 34편]는 60%, 황성신문 기사[22편]는 39%로 함께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약 95%의 기사가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의 기간에 분포되어 있었고 12월에 이르러 기사수가 격감됨으로 미루어 보면 관심도가 크게 줄어들었음

을 알 수 있다. 11월 말-12월 말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고종에게 ‘조칙 오조(詔敕五條)’대로 정치를 개혁할 것을 직접 청원·독촉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타났고 청조 정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이때의 기사는 대부분 잡보, 전보의 형식으로 실렸고, 광서제의 생사 폐립, 개혁파의 처치, 강유위 탈주 등 화젯거리에 주목했다.

흥미로운 것은 독립신문과 황성신문 기사에서의 변법 개혁파에 대한 호칭이다. 독립신문에서는 처음부터 이때까지 개혁파를 ‘개진당’ 혹은 ‘개화당’으로 불렀는데, ‘개화’는 “몽매에서 문명에 들”, “일깨워 교화시킴”의 의미<sup>117)</sup>를 내포하며 ‘개진’은 “계발(함)”, “촉진(함)”의 뜻<sup>118)</sup>이다. 따라서 독립신문의 호칭에 따르면 개혁파와 무술변법은 “몽매를 계몽하고 문명을 촉진”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황성신문의 경우, 홍콩보(香港報)의 내용에 따라 ‘유신당’으로 베껴 쓴 것 외에는 모두 ‘완고당’에 대응하여 ‘개혁파’로 썼다. 개혁의 내포를 살펴보자면 이는 “구제도와 낡은 사물을 변화시킴”, “악습과 낡은 관습을 없앴”<sup>119)</sup>의 뜻이다. 그렇기에 개혁파의 직분과 무술변법의 취지를 ‘나라의 발전에 방해되는 낡은 사물을 없애는 것’으로 본 황성신문의 이해 방식을 통해 그의 관점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양자 모두 입장에 따라 강조하는 점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계몽’과 ‘혁파’라는 개혁파의 진보적 역할을 인정하였다.

또한, 소문을 포함한 기사가 26편으로 높은 비중[46%]을 차지한다는 것도 역시 이 단계 보도의 한 특징이다. 원문에서 ‘소문’, ‘풍설’, ‘평설’ 혹은 ‘전설’ 등으로 명기한 것뿐 아니라, 사실에 어긋나거나 실증 없이 추측을 발표한 것도 소문으로 구분했다. 소문의 내용은 광서제의 생사 폐립, 개혁파의 처치, 강유위의 탈주 등 화제에도 많이 집중되었다. 청조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조선 신문은 “거월 이십사 일 발 런던 전보에 말하되 청국 황제가 돌아가셨단 말이 있었으나 다만 풍설인 고로 깊이 믿지 못하였다”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청 조정의 권위 있는 기구가 발표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았고 상당히 부족<sup>120)</sup>한 만큼 진상에 대한 외부의 갈구를

117) 『한어대사전』(12), p.16841.

118) 『한어대사전』(12), p.16857.

119) 『한어대사전』(5), p.6855.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며 실증되지 않은 소문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는 소문 전파의 매개가 되기 마련이었다. 그중 ‘원세개밀고설’을 인정한 것은 소문이 전파된 대표적인 예이다.

‘원세개밀고설’이란 소문의 요체는 개혁파가 변법을 실현하기 위해 광서제의 밀지를 받들어 원세개에게 군대를 이끌고 서태후의 심복인 영록(榮祿)을 죽이고 서태후의 권력을 빼앗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꾸로 원세개가 바로 영록에게 이들에 관해 밀고하여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서태후가 무술정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해당 소문에서는 원세개의 밀고를 무술정변이 발생한 요인으로 간주했고, 강유위, 양계초, 만주 관원의 원세개에 대한 정치적 비판[1898-1916]과 원세개 칭제(稱帝)에 대한 도덕적 비판[1916-1950년대]을 거쳐 1960년대부터의 무술정변과 관련된 학술적 논쟁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며 무술변법에 관한 대표적인 소문이 되었다.<sup>121)</sup> 조선 신문은 ‘청황 자복’이라는 기사에서 원세개밀고설을 처음 보도하였다.

“북경 구월 二十九일 발, 청국 황제가 자복하시되 원세개로 하여금 영록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군사를 이끌고 북경으로 들어와서 황태후 계신 별궁을 음습[陰襲: 인용자]하라고 하셨더니 원세개가 발설한 고로 일이 못 되었다더라”<sup>122)</sup>

사실 광서제는 개혁파가 원세개를 설득하여 권력을 탈취하려고 한 계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조서에서 언급하지도 않았다.<sup>123)</sup> 소위 ‘청황 자복’이라는 소식도 다분히 헛소문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세개밀고설은 ‘믿을 만한 일종의 추측’으로 후속 보도가 나왔다.

---

120) 예컨대 조선 신문은 주영국 청국 공사가 단 2번 말한 짧은 소문을 소개하며 변법을 보도하였고, 당시 공사의 언행은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까웠다. 전보, 「청황 생사」, 『독립신문』, 1898년 10월 11일; 전보, 「同七日發」, 『황성신문』, 1898년 10월 22일을 참조한다.

121) 郭衛東, 「再論戊戌政變中袁世凱的告密問題」, 『淸史研究』 1, 2002, pp.31-32를 참조한다.

122) 전보, 「청황 자복」, 『독립신문』, 1898년 10월 10일.

123) 茅海建, 앞의 책(2005), pp.132-137을 참조한다.

“청국 정계의 변한 원인은 각종 평설이 많으나 그 중에 강유위 등이 황제 폐하를 권하여 원세개의 병사로 만주인을 제압하고 서태후를 폐하려고 하였더니 원씨가 서태후의 밀지를 받든 영록에게 누설한 고로 발각이 되었다는 설을 가까이 믿을 듯한 것이 영록이 군기 대신에 전임하고 유록(裕祿)이가 직례 총독에 임한 일로 추상할 너라”<sup>124)</sup>

여기서는 영록과 유록이 사건 이후 승진한 점<sup>125)</sup>으로 보아 여러 소문들이 원세개밀고설을 대체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는 권위 기구의 정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상황에 무술정변에 대한 합리적인 일종의 추측인 셈이다. 그러나 원세개가 갑신정변 이후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sup>126)</sup>라는 신분으로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해서 조선 군신의 불만을 많이 초래했던 점<sup>127)</sup>을 고려하면 조선인들이 원세개 밀고설을 믿게 된 데에는 애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원세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으리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 조선 신문의 원세개 보도를 살펴보면 조선 신문의 어조 상 그들의 원세개에 대한 선입견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원세개밀고설’을 믿은 것은, 다분히 원세개를 부정하려는 의도 없이 권위 기구의 해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난 사건들을 목격하며 그에 근거해 일종의 합리적 추론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증되지 못한 정보를 발표한 것은 소문의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다면 조선 신문이 소문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 소문이 전파되는 원인에 대한 노엘(Jean-Noel Kapferer)의 해석에 따르면, 소문은 사람

124) 외국통신, 「北京政變續聞」, 『황성신문』, 1898년 10월 10일.

125) 영록과 유록이 승진한 것은 “榮祿著在軍機大臣上行走, 裕祿著補授直隸總督兼充辦理通商事務北洋大臣. 所有北洋各軍仍歸榮祿節制”라는 상유에 의거하여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정보원이 표시되지 않은 고로 사실이라기보다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本館接奉電音, 『申報』, 1898년 9월 30일을 참조한다.

126) 조선에 있었던 원세개의 지위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監國” 내지 總督, 조선의 왕으로 이해하였다. 유바다, 「1885년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조선 파견과 지위 문제」, 『사총』 92, 2017, pp.50-54를 참조한다.

127) 徐萬民, 『中韓關係史·近代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6, p.52.

들이 직접 토론할 수 있고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 소식으로서 중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모른다면 현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위험이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가 전달해 주는 소식을 믿게 된다. 독립신문을 읽거나 황성신문을 읽는 독자들은 그들이 주로 읽던 한국어 신문을 통해 소문을 접하고 영향을 받는다. 신문은 또한 타국의 신문을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들은 이런 신문이 전달해주는 소식에 따라 판단을 내리기 마련이다.<sup>128)</sup> 광서제의 생사와 폐립, 아울러 이로 인해 열강이 청조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관한 소문은 조선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일례로 “러시아에서 일간 북경으로 대군을 기송한다는 풍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계가 다 짐작하려니와 청국의 위급하고 존망함이 실로 시각에 있다…청국이 만일 삼분오열이 될 지경이면 대한 형세가 점점 외로울 것이니 또한 대한 전국을 위하여 극히 염려할 일이다”<sup>129)</sup>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러시아가 대군을 북경에 파견한다는 소문으로 청조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이치에서 옆 나라 조선의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사례일 것이다. 이처럼 자국의 안전이 경각에 달렸음을 알리기 위해 청조 정변의 진상을 갈구하며 한국어 신문은 소문을 스스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보다 무술변법과 무술정변 후의 청조 정세에 관심을 크게 기울였고 광서제의 생사 폐립, 개혁파의 처치, 강유위 탈주 등에 시선을 돌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혁파의 ‘계몽 혁파’라는 역할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또한 청조 정변의 진상을 추구하는 단체적 이익과 조선의 안위를 보전하는 국가 민족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스스로 소문을 기재하기도 했다.

무술변법과 독립협회 운동이 모두 실패한 다음 단계에 이르러 변법과 청조 정세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들었다. 독립신문 폐간 때까지의 청조 정세에 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128). Jean-Noel Kapferer 저 鄭若麟 역, 『謠言-世界最古老的傳媒』, 上海人民出版社, 2018, pp.51-57을 참조한다.

129) 명담, 『독립신문』, 1899년 10월 2일.

<도표 3-3> 1899년 청조 정세에 관한 기사 통계

번호	제목	신문명	날짜	기사 유형	관련 사건	비고
1.	청국 형편 문답	독립신문	1899.1.11	논설		
2.	북경 황태후 탄신	독립신문	1899.1.12	외국통신	서태후 탄신	
3.	淸議報	황성신문	1899.1.13	外報照膽	청의보 창간	
4.	燕京風傳	황성신문	1899.1.17	잡보	광서제 폐립 과 생사	소문 포함
5.	청국 황제의 개화	독립신문	1899.1.25	논설		
6.	강유위씨	독립신문	1899.1.28	외국통신	강유위 도망	
7.		매일신문	1899.2.7	외국통신	광서제 폐립	소문 포함
8.	康有爲와 刺客	황성신문	1899.3.10	外報照膽	강유위 도망	소문 포함
9.	伊國要求와 閩浙總督	황성신문	1899.3.23	外報照膽	산문만 사건	소문 포함
10.	淸使의 依囑	황성신문	1899.3.30	外報照膽	이등 방문	
11.	北京近報	황성신문	1899.4.5	外報照膽	광서제 폐립	소문 포함
12.	淸帝近狀	황성신문	1899.6.27	外報照膽	광서제 폐립	
13.	청길 폭약	독립신문	1899.7.7	외국통신		소문 포함
14.	北京近情	황성신문	1899.7.17	外報照膽		
15.	北京近信	황성신문	1899.7.20	外報照膽		
16.	北京近信	황성신문	1899.7.24	外報照膽	광서제 근황 과 서태후 개혁	
17.	所謂西后改革	황성신문	1899.8.11	外報	서태후 개혁	
18.	The China Question	독립신문 (영문판)	1899.9.14	Telegraphic News	광서제와 서 태후 화해	소문 포함
19.		독립신문	1899.9.30	명담		
20.		독립신문	1899.10.2	명담		
21.		독립신문	1899.10.5	명담		
22.		독립신문	1899.10.17	명담		
23.		독립신문	1899.11.3	명담		
24.	청국을 나누는 소문	독립신문	1899.11.21	잡보		소문 포함
25.		황성신문	1899.12.4	논설		

<도표 3-3>에 따르면 1899년의 기사 수는 지난 단계의 45%까지 줄어들었는데, 독립신문[영문판을 포함함]은 가장 큰 폭으로 줄어 지난 단계의 65%까지 줄었다. 기사는 대체로 매일 골고루 분포해 있었고, 잡보 기사는 17편으로 광서제의 생사 폐립에 계속 관심을 두었으며 논설 기사는 8편으로 대부분 무술변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회고하였다. 또한 청조 정세가 평정되면서 소문을 기재하는 상황도 많이 감소했다. 이 단계의 보도 경향을 살펴보자면, 물론 ‘완고당을 폄하하며 개혁파를 칭찬한다’는 독립신문의

기본 입장과 실적에 따라 판단하려는 기준 사이에 서로 차이가 있었으나, 양자는 무술정변 후의 청조 정세를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일치하였다.

독립신문은 정변 후 청조의 혼란 상황을 드러내는 것에 치우쳐 서술하였는데, 11월 21일의 논설은 이러한 논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청국은 정치가 결코 법률이 문란하여 정부 관인들이 서로 권리만 다투고 인민을 학대하며 나라의 일들은 돌아보지 않고 사사 이욕만 채우며 서로 충신인 체하고 서로 모함만 하며 나라에 땅덩이는 모두 외국 사람들에게 빼어 주며 허락하고 외국 사람들에게만 아첨하고 의지하려고 하며 옛적 풍습만 좋다고 하고 완고당들이 득세한다”<sup>130)</sup>

여기서는 청조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완고당이 득세하고 이욕을 다투며 외국과 결탁한 탓으로만 돌렸다. 이러한 논조는 서태후파의 ‘악행’을 드러내는 반면 개혁파의 잘못은 무시하였다. 외국과의 결탁을 예시로 들면, 사실 무술변법 후기에 이르러 개혁파 관원은 영국 선교사 티모시 리처드(李提摩太)와 이토 히로부미의 ‘(외국의) 인재 차용[借才]’과 ‘합방’이라는 주장에 대체로 모두 동의하였고, 심지어 정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퇴가성(雷家聖)의 관점에 따르면 소위 ‘인재 차용’·‘합방’이라는 주장은 실제로 청조의 군사 외교 등 권리를 외국에게 이양함으로써 청조의 식민지화를 심화시킨 것이었다.<sup>131)</sup> 그러나 당시 황성신문에서 주일본공사 이성탁(李盛鐸)이 이토에게 서태후의 개혁에 참여하라는 소문<sup>132)</sup>을 기재한 점, 당시 독립신문 사장 겸 주필 아펜젤러 선교사가 황성신문 사장 남궁억 등 양반들과 친분을 맺어 자주 교류하고 있었다는 점<sup>133)</sup>을 결합해 보면, 독립신문은 개혁파의 ‘인재 차용’ 계획을 알고

130) 명담, 「청국을 나누는 소문」, 『독립신문』, 1899년 11월 21일.

131) 雷家聖, 『失落的真相：晚清戊戌政變史事新探』, 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16, pp.154-155; 179를 참조한다.

132) 이성탁이 이토에게 권유하는 일은 양자의 회담을 실시간적으로 기록한 『이성탁래알담화필기(李盛鐸來談話筆記)』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술변법 때에서 태후가 광서제의 이토 접견에 관해 시종일관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실상은 알기 힘든 소문이며, 개혁파 ‘인재 차용’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정할 수 있다. 外報 照騰, 「淸使의 依囑」, 『황성신문』, 1899년 3월 30일; 茅海建, 앞의 책(2005), pp.92-97을 참조한다.

133) 남궁억은 독립협회 운동 실패 후 체표 명단에 들어서 일시적으로 산속에서 숨어버렸다가 후속 문책을 받지 않고 1월 말-4월 말 사이에 의관을 계속 담당하고 있었다. 이

있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게 나라의 권리를 양도하려 한 개혁파의 정책에 대해 독립신문은 오히려 눈을 감았다. 편향적인 언론은 이렇게 개혁파에게 불리한 사실을 회피하고 서태후파의 행위를 과장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태후가 집권한 이래 청조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비판한 것은 ‘완고당’을 비판하려는 이들의 공통된 기본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성신문은 청조의 통치자가 곤경에 처할 때 속수무책이며 인민이 국사에 무관심한 상황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서태후의 경우, “개혁으로 인하여 근래 빈번히 초심고려하는 모양”<sup>134)</sup>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정치를 의논할 때에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의 쇠약을 탄식한다.”<sup>135)</sup>고 묘사되었다. 청조 인민의 경우, “황제를 이화원(頤和園)에 유폐하고 정령이 한 과부의 손에 혼란하여도 위구심이 일어나지 않고 이때 구차하게 살아가는 자는 모두 스스로를 보전하려는 생각이요 욕망[溪壑]을 쫓는 무리는 모두 사육을 위하는 꾀이니, 이것은 일종의 애국심이 사라져 나간 이 지경”<sup>136)</sup>에 이르렀다고 서술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황성신문은 “우방(友邦)에 있는 우리도 정말 무시할 수 없어 통분한 마음이 일어나기로 슬프고 분하는 감정을 표하노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청조를 우방으로 삼아 그 정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전 단계의 ‘형제와 같은 나라’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청조와 평등적·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체결하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고, 조선 양반 지식층에게 여전히 청조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현황을 보여줬다.<sup>137)</sup> 이는 혁신유학자들의 정치적 주장이며, 독자인 양반 사대부 또는 한문을 아는 민중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인데, 그 의도는 국가 나아가 동양의

---

때 아펜젤러는 자주 남궁억 등을 방문하여, 그에게 기독교를 전도하였고 이후 그가 기독교인이 되는 동기를 만들기도 했다. 김세한 한서남궁억선생기념사업회, 앞의 책(1960), p.96; 잡보, 「수정의원」, 『독립신문』, 1899년 1월 27일; 『비서원일기』(42), 고종 36년 4월 26일, p.032a; 역사위원회, 『한국감리교인물사전』, 기독교대한감리회, 2002 등을 참조한다.

134) 外報 照騰, 「北京近信」, 『황성신문』, 1899년 7월 24일.

135) 外報 照騰, 「北京近信」, 『황성신문』, 1899년 7월 20일.

136) 논설, 『황성신문』, 1899년 12월 4일.

137) 최경숙, 『황성신문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0, p.66을 참조한다.

이익을 위한 사고에 기초해 있었다. 정리하자면, 독립신문은 ‘완고당을 비판하며 개혁파를 칭찬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황성신문은 한·청이 직면하는 위기로 청조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모두 청조의 현황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무술정변 후의 청조 정세를 비판하는 한편, 무술변법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였다. 일례로 독립신문은 무술변법을 회고했을 때 “이 네 가지 법[報章法, 議會法, 學校設示法, 善教法]을 행하여야 청국이 능히 문명 부강에 이르리라 하였더라”<sup>138)</sup>고 평가하였고 무술변법에서 이미 실행된 이 네 가지 법은 조선의 상황에도 적용되니 조선 정부에게 네 가지 법을 따라서 실행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독립신문은 청조 근대화를 촉진하는 무술변법의 역할을 인정하는 동시에 여전히 변법을 정부 당국에게 정치 개혁을 권유하는 일종의 여론 도구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신축 신정 때에 이르러 황성신문은 또한 무술변법을 회고하였는데, “만약 무술정변 때에 광서제의 웅대한 경장 계략을 취하였다면 권비[拳匪, 의화단을 말함: 인용자]가 감히 창궐하지 못하고 팔국연군이 요란하지 못하며 종묘·궁전·부고(府庫)·도성이 파괴되지 못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황제와 황태후가 서안에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조가 세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승패를 겨룰 수 있었다”<sup>139)</sup>는 평가는 청조의 반침략·근대화라는 측면에서 무술변법의 긍정적인 의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신축 신정에 대해서도 ‘악몽에서 깨달아 생존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청조의 앞길을 적극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무술정변 후의 청조 정세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청조와 조선의 운명치한의 관계를 인식한 상황과 기초 위에서 청조가 무술변법과 같은 개혁을 행하여 근대화에 이르리라고 기대하는 선의적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청조 개혁파의 ‘계몽 혁파’의 역할과 무술변법이 청조의 근대화를 가져올 것이 대체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 신문이 정변의 진상을 갈구하는 단체적 이익과 조선의 안위를 보전하는 국가 민족적 이

138) 논설, 『독립신문』, 1899년 10월 17일.

139) 논설, 「淸國有革新之善策」, 『황성신문』, 1901년 3월 22일.

익을 위해 소문을 스스로 전파하였다. 또한 조선 신문은 외세의 침략이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동양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조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비판하는 한편 청조가 무술변법과 같은 개혁을 전개하여 근대화에 이를 것을 바라고 있었다.

## 2. 독일, 일본 신문과의 비교에서 본 조선 신문의 특수성

지금까지 무술변법 보도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독일어와 일본어 신문에 편중되고 있다. 마트야스 자크만(Urs Matthias Zachmann)과 왕명위(王明偉) 등의 연구와 더불어 일본의 경우, 일본 신문계의 변법 보도 실황과 변법 평가를 살펴보자면 우선, 무술변법 때 각지의 신민들이 상주를 자유롭게 올리는 것을 준허하는 조치에 대해서 스케고로는 ‘이미 늦었다’고 직언했을 뿐만 아니라 변법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것을 생각했다면 두 가지 이상의 이전 사례는 청국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새 조치를 실시하고 인민의 마음속에 새 정신을 불어넣으며 나쁜 풍습을 폐지하고 새 길에 진입하려고 한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이 일을 아주 엉터리로 해 놓고 무턱대고 하는 기적[盲滅法の奇跡]에서 활극을 벌이다시피 하였다. 아울러 하던 일이 마침내 지나가고 위험이 점점 사라진다면 상식적으로 개혁에 대한 열정은 즉시 냉각해지기도 한다. 개구리가 우물에 떠나 물결을 남긴 것을 예로 비유할 수 있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정규 정책에 (냉각된 열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다. 희극적 거짓말[茶番の狂言]이더라도 웃을만한 것은 거의 없다”<sup>140)</sup>

여기 흥미로운 점은 스케고로가 변법의 무질서함을 강조하기 위해 “무턱대고 하는 기적[盲滅法の奇跡]”과 “희극적 거짓말[茶番の狂言]”이란 표

140) 志賀祐五郎, 「支那如何せん」, 『萬朝報』, 1898년 7월 27일(Zachmann, 앞의 책(2009), p.99에서의 재인용을 참조한다).

현을 써서 무술변법을 묘사한 것이다. 그중, “盲滅法”이라는 표현은 ① (대중도 없이) 무턱대고 함 ② 되는 대로 함 ③ 함부로 함 등 세 가지 뜻<sup>141)</sup>을 가지고 있으며, “茶番狂言”이라는 용어는 “이야기 몸짓 등으로 사람을 웃기는 좌흥” 혹은 “그 자리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몸짓 손짓으로 익살을 부리는 연극”<sup>142)</sup>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어휘가 사용되었을 때 독자는 그 맥락에 부정적 함의가 들어 있음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스케고로가 관찰한 무술변법은 아무런 이유도, 판단도, 사고도, 계획도 없으면서 쉬운 장난처럼 무질서하였고, 또한 변법이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도 우연한 ‘기적’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스케고로와 시잔은 무술변법의 핵심 인물인 서태후와 강유위 등에게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스케고로가 중앙신문에서 서태후의 집권 이념, 개인적 성격, 생활 특징 및 명성 등에 대해 평가했던 내용에 따르면 서태후는 동치제, 광서제를 대신하여 섭정한 이십여 년 동안 궁궐에 머물렀고 기존의 섭정 방식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외국 대표를 만난 적도 없었다. 또한 사치스럽게 낭비하는 생활을 하였고, “매일 좋을 대로 사람을 요청하고 부드러운 노래·춤과 같이 끝없는 야간의 연회에서 시간을 보내며, 수도와 다른省的 신하와 인민에게서 받은 헌납·기부를 남용하고 사치하기 위해 함부로 기부금을 쓴다”<sup>143)</sup>라고 묘사한 바가 있다. 서태후 개인도 “매우 예민하고 약삭빠르고 의심과 경계심이 많아 자신을 사람에게 숨기는 사람”이라고 했고, 이 때문에 “그녀의 신하와 인민에게 황태후는 분명히 도덕적인 권위가 없다”<sup>144)</sup>고 하였다. 스케고로의 표현에 따르면 서태후는 수구적이고 사치스럽고 부패하였으며 심지어 지배자의 권위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잔은 강유위, 양계초와 왕래하면서 강유위가 변법 초에

141) 운평어문연구소 편, 『(DESK)日韓辭典 Japanese-Korean Dictionary』, 금성출판사, 1997, p.2199; 시사영어사 사전편찬실 편, 『(Sisa)Elite 일한사전 Sisa Elite Japanese-Korean dictionary』, 시사영어사, 1996, p.2086.

142) 大同文化社辭典編纂部 編, 『(大同版)日韓大辭典』, 大同文化社, 1994, p.1360.

143) 川崎紫山, 「戰後の支那」, 『中央新聞』, 1898년 4월 25일(Zachmann, 앞의 책(2009), p. 95에서의 재인용을 참조한다).

144) 앞의 주석과 같다.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도망갈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스스로 칭하는 대로) 밝은 전망을 가진 신사가 아니다”고 직언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강유위는 서양인이 뺀 침을 수집하여 허튼소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고, 양계초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문인이자 놀개일 뿐”<sup>145)</sup>이라고 단언하였다. 시잔은 변법 때 강유위가 보인 우유부단한 행동에 근거하여 외부에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강유위는 서양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막말을 하는 ‘미치광이’에 가깝다고 보았고 양계초도 자질이 ‘평범’하고 강유위만 따라다닐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스케고로와 시잔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무술변법은 서양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평범한 사람들의 장난에 불과하였고, 게다가 청조의 지도자는 수구적이고 사치를 일삼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청조의 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논조는 왕명위가 정리한 동아회의 조직자이자 언론인인 구가쓰난의 문장에서도 볼 수 있다. 가쓰난은 무술변법을 회고하며 먼저 사상적 혁신이 없었다고 비판하였고, 나아가 청조는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선진적 위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일본의 언어, 사상 심지어 일본의 것을 전면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sup>146)</sup> 그러나 왕명위가 이런 가쓰난의 비판의 발언 동기,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고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의적인 비평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일본은 동양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청조·조선과 달리, 청일전쟁 후에 한때 ‘아시아의 프로이센’, 심지어 ‘잠재적인 침략자[황화론(黃禍論)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로 서구 나라에 의해 간주되었고, 국제적 신분이 사실상 열강으로 전환되었다. 청조에 대한 일본의 외교활동은 “청조에서의 일본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sup>147)</sup>는 것이었다. 또한 가쓰난이 조직한 동아회와 동문회, 흥아회 등 소위 일본의 민간단체

145) 志賀祐五郎, 「支那問題」, 『萬朝報』, 1898년 9월 25일(Zachmann, 앞의 책(2009), p. 100에서의 재인용을 참조한다).

146) 陸実, 「社交上の日清」, 『東亞時論』 제3호, 1899(王明偉, 앞의 논문(2008), pp.40-41에서의 재인용을 참조한다).

147) 茅海建, 앞의 논문(2004), p.64-65.

는 실제로 일본 외무성과 군부의 지원을 받은 기구이고, 동문동종(同文同種)의 명목으로 선린우호와 원조를 약속함으로써 한청 양국의 관원과 지식인들의 호감을 얻어내고 정보를 정탐하였다.<sup>148)</sup> 그리고 이와 같은 청조의 사정을 비판하는 일본의 언론은 청조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을 배우고 일본의 지도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승인하고 일본과 친하게 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착안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언론은 심지어 대외 확장적인 아시아주의와 같은 일본 우월론을 고취하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침략을 지향할 “대륙 정책”의 발단이 되었다.<sup>149)</sup>

그러므로 일본 국가 위상의 변화, 가쓰난이 맺고 있었던 정부 및 군부와 의 깊은 관계, 해당 언론이 제시된 동기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이러한 ‘선의적인 비판’의 배후에는 청조에서 일본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한 사고가 들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선진국의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자세로 청조의 개혁을 폄하하여 청조 내정에 개입하는 핑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가쓰난이 파악하는 무술변법이란 외국의 개입과 도움이 없으면 무질서한 상태에서 반드시 실패할 종류의 것이다.

일본 언론과 마찬가지로 독일 언론도 무술변법 조치의 실행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외국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했다. 실레시아 데일리(Silesia Daily)는 먼저 광서제의 좋은 의도를 인정하였지만 외국인이 변법에 참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개혁은 이런 상황에서만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이 ‘나중에 많은 외국인을 불러들이기로 결정하고 완전히 손을 놓으면서 외국인들에게 일을 시키며 충분한 권력을 줄 때’이다”<sup>150)</sup>고 설명하였다. 프랑크푸르터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서도 광서제와 개혁파의 ‘개혁 노력’을 인정하고 공감하였지만, 무술변법에 대해 스케고로와 같이 ‘이미 늦었다’는 부정적

148) 盛邦和, 「19世紀與20世紀之交的日本亞洲主義」, 『歷史研究』 3, 2000, p.126; 戚其章, 「近代日本の興亞主義思潮與興亞會」, 『抗日戰爭研究』 2, 2008, p.52 등을 참조한다.

149) 盛邦和, 앞의 논문(2000), pp.126; 134-135.

150) 「中國的改良運動」, 『西裏西亞日報』, 1898年 11月 4日(Felber 저 李士勛 역, 앞의 논문(1999)에서의 재인용을 참조한다).

인 평가를 내렸다. 심지어 “중국의 진정한 개혁은 유럽의 지배 아래에서야 이뤄질 것이다”<sup>151)</sup>고 서구 국가의 개입을 공공연히 부추겼고, 무술정변 후에도 “이 왕조는 나중에 멸망할 운명을 막으려면 외국의 원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sup>152)</sup>고 강조하였다. 이 양자는 모두 서구 국가 특히 독일이 무술변법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청조에서 독일의 이익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일어 담론의 태도는 무술정변 후의 청조 정세와 개별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도 볼 수도 있다. 베저 쿠르예르(Weser Kurier)는 전 주청독일공사 막스 폰 브란트(Max von Brandt)의 언론을 실어, 독일과 유럽 각국을 위해 전력을 다해 현존 유일한 권위인 북경 정부를 지지해야 할 것을 공공연히 고취하였다. 이홍장에 대해서 독일 신문이 호감을 표하고 그의 재집권에 희망을 붙인 것은 이홍장이 “독일 사람은 믿을 만하다”와 “독일에게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친독적인 언사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라고 펠퍼에 의해 밝혀졌다. 독일인들이 당시 이홍장을 중요시한 결과, 독일어 신문은 개혁파가 황제로 하여금 이홍장을 파면하게 하고 서태후를 공격하고자 한 것을 변법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개혁파가 강력한 인물들을 멀리한 결과, 그들의 세력 확장에 위협감을 느낀 서태후로 하여금 반격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것과 다름없고, 개혁은 광서제와 서태후 사이 결사적 싸움으로 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독일 신문은 청조에서 본국 이익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변법을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독일과 일본 신문은 무술변법 조치의 실행을 회의적으로 보면서 외국의 개입을 강조하고 청조에 대한 내정 간섭을 공공연히 부추기면서 변법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한편 청조에서의 본국 이익을 확대하려는 요구를 그대로 보여줬다. 그들의 인식에 따르면, 청조가 외국의 참여 없이 벌인 무술변법은 무질서한 자작극과 다름없었다. 무술변법 후에 그들은 “연약하고 안정된 중국 정부만 원한다”<sup>153)</sup>기 때문에 서태후파가 집정하

---

151) 「中國의‘新方針’」, 『法蘭克福日報』, 1898年 11月 16日(Felber 저 李士勛 역, 앞의 논문(1999)에서 의 재인용을 참조한다).

152) 「北京的危機」, 『法蘭克福日報』, 1898年 11月 15日(Felber 저 李士勛 역, 앞의 논문(1999)에서의 재인용을 참조한다).

153) Urs Matthias Zachmann, 앞의 책(2009), p. 117.

는 현황을 승인하였다. 이것도 열강 사이의 전쟁을 피하고 각자의 세력권 내에서 제대로 관할할 수 있게끔 하는 “중국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영토를 온전하게 유지한다”<sup>154)</sup>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에 열강의 시각에서 본 무술변법은 그들이 청조에서의 본국 이익의 확대를 바탕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로 평가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개혁이었고, 문명국의 도움이 없는 청조는 여전히 낙후하고 근대화 문명을 배척하는 야만적인 정치 실체이며 국제 위상이 청일전쟁 후와 같았고 인식되었다.

그런데 무술변법 때 자국의 이익을 시종일관 강조했던 독일·일본 신문에 비해, 한국어 신문은 개인이나 단체적·민족이나 국가적·지역적 등 세 가지 차원의 이익을 담겨 있었고, 이에 따라 대청이나 변법에 대한 관찰·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청조와의 교제에서 쟁취한 바는 특권이 아니라 평등이나 대등한 권리, 외교 지위 등이었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열강과 조선 그들의 변법 관찰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비교하자면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그룹의 무술변법 관찰의 기반이 달랐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청조에서본국 이익의 확대를 꾀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자국이 갖고 있는 경험, 즉 개혁을 통해 강한 국력과 높아진 위상을 취득했던 경험에 비취 변법을 평가 절하하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변법을 본 것은 필경 청조 근대화 발전의 시각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으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한 데가 있거나 변법에 대한 동정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변법을 위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행동은 더욱 드물었다”.<sup>155)</sup> 즉 청조에서 본국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변법에 관한 서술과 선전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경우, 본국의 정치 형세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청조 이미지를 보고 있었다. 조선인 개혁 세력과 무술변법 지도층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도 역시 변법 인식의 기초가 되었다. 이로 생긴 변법 이해에서는 그 단체 자신의 입장과 주장

---

154) Rudolf G. Wagner, “Dividing up the [Chinese] Melon, *guafen* 瓜分”: The Fate of a Transcultural Metaphor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Myth, *Transcultural Studies* Vol.8 No.1, 2017, p.118.

155) 茅海建 鄭匡民, 앞의 논문(2004), p.63.

의 표현, 조선 자신의 안위와 한청 양국의 국가 운명에 대한 사고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양 그룹의 관찰의 기반은 달랐지만, 양자가 최종적으로 각자 이익의 표현함에 사용하였다는 면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둘째, 양 그룹의 서사 초점이 다르다고 보인다. 청조에서 자국이 누려온 이익이란 관점에서 이뤄진 관찰이었기 때문에 독일어, 일본어 신문은 외국인과 자국인의 권익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개입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연적이었다. 그런데 본국의 정치 형세 변화와 변법을 연결시켜 기술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한국어 신문의 시선은 이들의 서사 초점과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 신문의 시선은 구체적인 조치에서 서태후파의 행위로 관심의 변화를 거쳤고 나아가 전체적인 회고에 옮겨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무술변법은 다양한 정치적 함의가 부여되었다. 이것 역시 양 그룹이 변법을 보도하는 데에서 취하려고 하는 이익의 종류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특징이었을 것이다.

셋째, 관련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독일과 일본의 신문은 청조에서의 본국 이익에 얽혀 거의 자신과의 친분 관계를 맺으려던 인물에 대해서만 호감을 공개 발표하였다. 그들의 관찰에 따르면, 강유위 등 개혁파는 서구 문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치 신출내기일 뿐이고 서태후는 서구 문명을 거절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통치자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 신문은 대체로 개혁파 “계몽 혁파”의 역할과 무술변법이 청조의 근대화를 가져올 것을 인정하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서태후파가 외침을 막기 위한 군사 준비의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서는 칭찬했지만 변법 진압·개혁파 처치·광서제 구금 등으로 생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었다.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인 변법 관찰과 대청 인식은 독일·일본과 조선의 대청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열강은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하여 청조의 내정을 내려다보아 간섭하는 방식을 계속해 나갔고 특히 광서제의 폐립 문제를 둘러싸고 나아가서 ‘태후로 하여금 강제로 황권을 광서제에게 넘기라고’ 하는 요구로 발전하였다. 이 요구는 범문란(范文瀾), 모안세(牟安世), 주동안(朱東安) 등 학자가 열강에 대한 서태후의 선전포고가 발표되고 경자사변(庚子事變)이 발생한 요인으로 간주된다.<sup>156)</sup>

조선의 경우, 조선과의 평등 외교를 전개하려던 변법 조치는 일부 조선인의 중국관을 변화시켰는데, 이승만의 대청 인식이 보여준 변화상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최초로 무술변법을 ‘한국을 삼키려는 확장 조치’<sup>157)</sup>라 서술한 언론에 비해, 그는 독립협회 실패 후 체포를 당해 옥중에서 쓴 글에서 이러한 대청 입장을 바꾸었다. 즉 “무술년에 이르러 청국이… 그 거만 방자하여 남의 나라를 곧 없는 것으로 보던 기습을 없이하고 평등 독립국으로 극진히 공경하여 예절을 차리고 다시 정의를 친밀히 하여 자고로 관계자 별하던 교제를 여전히 함은 실로 동양에 다행이라”<sup>158)</sup>고 한 것이다.

또한 단체적·국가적 이익의 측면에서 보건대, 결국 무술변법과 독립협회의 애국계몽운동은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한중 지식층은 한청 양국 동병상련(同病相憐)한 현실 상황을 자신이 한문을 알아보기 쉬웠던 점, 신분이나 사고의 흐름 등에서 양계초와 비슷했던 점 등과 더불어 바탕으로 그 뒤에 양계초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흡수·수용하고 사회적인 계몽을 통해 민중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조선 외·내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시도하였다. 이들은 양계초의 저서를 광범위하게 번역·기재하여 조선 국정과 자신의 입장에 부합했던 언론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빙실문집을 교과서로까지 선정하며 교육 활동을 실천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무술정변 후에 청조의 혼란 정세가 조선인에게 ‘연약하다’는 이미지를 남겨주었고, 심지어 조선의 국가 이익을 위해 팔국연군이 북경을 점령한 뒤에 고종은 대첩을 축하하며 내관에게 군수품으로 팔국연군을 위로하라고 파견하였고,<sup>159)</sup>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시찰원[1903년부터 ‘관리사’로 칭함]에 임명해 간도 일대를 다스리기로 시도하였지만, 청조 길림장군(吉林將軍)의 저지를 받으며 실천할 수 없었다. 연약한 중국관과

156) 朱東安, 「從三份歷史文件看庚子之戰的性質與起因」, 『明清論叢』 7, 2006; 牟安世, 『義和團抵抗列強瓜分史』, 經濟管理出版社, 1997, 제9장 제1절; 范文瀾, 『中國近代史』, 東北書店, 1948, 제8장 제4절 등 내용을 참조한다.

157) 논설, 『매일신문』, 1898년 9월 28일을 참조한다.

158) 이승만, 『독립정신』, 정동 출판사, 1980, p.228.

159) 저자 미상, 『日新』 권3, 국사편찬위원회, 1983, p.454; 463; 정교, 『대한계년사』 하, 국사편찬위원회, 1957, p.63; 황현, 『매천야록』 권3, 1971; 잡보, 「稿師還朝」, 『황성신문』, 1900년 8월 21일 등을 참조한다.

열강의 자국 이익의 확대를 틈타 조선 정부는 오히려 청조에 관한 일에 개입하기로 시도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무술변법에서 외국의 관리를 강조하여 청조 스스로의 개혁을 낮추았던 일본과 독일의 신문에 비해, 조선 신문은 본국의 정세 변화와 인식 기초에 따라 변법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청조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줬다. 이것은 조선 신문이 단체적·국가적·지역적 등 세 가지 차원의 이익을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구성된 중국관은 지식층의 애국계몽운동과 조선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 결론

이상 필자는 무술변법에 대해 다양한 논조를 실어 기록했던 당시의 주요 언론 매체인 조선 신문의 보도로부터 착수하여, 독립신문과 황성신문 등의 보도 실태, 특징, 동기, 각 조선 신문 배후의 다양한 이익과 아울러 이로 생긴 중국관 및 이러한 관념의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당시 독립협회 운동의 전개와 결부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각국 정부의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었던 것에 반해, 조선 신문은 독립협회, 혁신 유학자 등 사회단체 혹은 개인이 직접 참여한다는 특성을 지닌 플랫폼으로서 그들 각각이 가졌던 무술변법에 대한 조선 사회의 이해, 인식 등을 그대로 반영했다. 대체로 각 단체 배후의 이익을 바탕으로, 조선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무술변법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가진 청조의 이미지를 보여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존재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하였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대청 인식이라는 표면에만 집착하여 언론 그 자체의 정확성 여부 등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본문은 이와 다르게 독립신문과 황성신문 배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청조의 사건을 보도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청일전쟁 후에 독립신문 한글판에서는 패배 후의 청조를 ‘천한 청’으로 폄하하고 있었다. 그러나 열강에 의한 침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서구의 독자들에게 조선의 독립 지위, 정부의 정책 등을 소개해 주려 했던 영문판에서는, 주로 청조의 사회 분위기 및 정계의 부패를 비판하였으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조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거야교안과 교주만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청 정부의 연약함을 드러내려던 한글판에 반해, 영문판은 청조의 저항과 결심에 대해 대서특필하였다. 이러한 대청 관찰과 인식이 이루어진 배후에 “단체[독립협회]-국가와 민족[조선]-지역[동양]” 등 다차원의 이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단체의 입장에서는 청조를 사례로 삼아 조선 정부를 비판하여 독립협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국가와 민족의 입장에서는 청조를 폄하하여 조선 정부의 정체성을 강조하였고, 지역의 입장에서는 청조를

가진 침략에 대항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서술하여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독립신문은 이 세 가지 이익과 더불어 변법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무술변법을 보도하였다. 독립신문은 애초에 언론 개방의 변법 조치를 사례로, 고종의 비난에 대응하여 독립협회 정치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언론의 자유를 합리화하려 하였다. 무술정변 후의 서태후 일파의 행적을 과장하여 고종에게 보고해 정치개혁 및 수구 대신 파면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제시하는 한편, 보수파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독립협회는 해산 후 무술변법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정의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청조를 사례로 조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수단을 계속 활용하였다. 이처럼 무술변법을 보도하는 과정에 광서제 일파에 대한 호감·동정 및 서태후 일파에 대한 혐오·불만 등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

독립협회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으면서 혁신유학자가 창간한 황성신문도 초창기에는 청조를 사례로 활용하여 조선 국내의 수구 일파를 비판하는 여론 수단으로 독립협회의 정치 활동에 지원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선과의 평등 외교를 시작하려는 변법 조치나 서태후 일파에 대한 인식 등의 방면에서 황성신문은 독립적인 논술을 전개하였다. 황성신문은 '절대적 대등'을 추구하는 독립신문과 달리, 현실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여 청조와 조선의 지위·권리 등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며 한·청 조약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파벌에만 의거하여 평가하는 독립신문과 달리, 황성신문은 파벌이 아닌 실적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독립적인 논술은 황성신문 배후의 혁신유학자가 공공매체를 통해 발언권을 쟁취하려는 현실적 요구와 함께 전통 실학의 정신을 발휘하고자 하는 가치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로써 황성신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 청조 황제의 변법 조치를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총리아문을 풍자하였다. 또한 무술변법을 진압한 서태후 일파에 대해서도 그들의 실적에 의거하여 일부는 풍자했으나 일부는 인정하면서 심지어 긍정적 평가도 내렸다.

전체적으로 조선 신문은 무술변법을 관찰하면서 애초에는 그 시선을 구체적인 조치에 두었다가, 나중에는 광서제 생사·강유위 탈주·개혁파의 처치 등 몇 가지 화제로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무술정변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추구하고 조선의 안위를 보전하는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목적의 풍설을 상당수 기재했고, 무술정변 후에는 청조 정세를 비판하면서 청조의 미래를 걱정하였다. 조선 신문의 서술에 따르면 청조는 구습을 고집하고 진정한 개혁을 말살하면서도 국가근대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외침에 저항한다는 모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선 신문의 보도를 통하여 무술변법을 검토하는 것은 ‘열강 시각에 따라 본 무술변법’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었다. 열강 가운데 독일과 일본의 신문은 중국에서의 이익 확대에 입각하여 무술변법을 관찰하면서 외국인의 지도가 없는 무술변법의 실패를 단언하였고, 무술변법의 진행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법 관찰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중국에 대한 일련의 편견이 존재하였고, 무술변법이 청조의 근대화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하였다. 그러나 未개화국을 내려다보는 자세로 무술변법의 실패를 미리 예정한 독일과 일본의 신문에 비해, 조선 신문은 본국 정세가 변화됨에 따라 청조의 변법을 독립협회의 정치 요구를 제시하거나 조선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으로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였고, 대체적으로는 개혁파의 ‘계몽 혁파’라는 역할을 인정하는 등 무술변법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신문은 무술변법이 청조의 언론 개방, 조선과 평등 외교의 전개 등 선진적인 조치를 실시하였고 수구의 태도에서 벗어나 능히 부강 문명에 이를 수 있는 근대화 개혁이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특권을 강조하는 독일과 일본 신문에 비해, 조선 신문은 한·청 양국의 평등 권리를 주장했다. 이처럼 열강이 중국에서의 특권을 강조하여 청조의 내정을 간섭한 것은 서태후의 공황을 불러일으켜 어느 정도 경자사변의 발생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조선 지식층은 청조를 조선과 평등한 나라로 여겨 무술변법의 근대화 조치를 목격하고 그 변법을 인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무술변법 후에는 양계초의 유신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의 내·외부적인 위기를 해결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근대화를 의미한다는 무술변법이 실패하고 청조가 팔국연군의 간섭을 받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조선 정부는 청조를 연약·낙후한 것으로 여기고 간도에서 유효한 통치를 세우려는 정책을 취하였다.

셋째, 독립신문은 ‘부정적인 중국관’을 한결같이 유지했고, 황성신문의 중국관은 부정을 거쳐 긍정까지 변화되거나 부정과 긍정이 양립하고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편파적인 중국관’ 주장에 대해 본문은 달리 보려고 한다.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은 그 배후의 다차원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청조의 이미지를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야교안과 교주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청조의 대응책에 대해서, 조선 민중을 대상 독자로 삼는 독립신문 한글판은 격퇴를 당한 청군의 낭패한 모습, 독일의 강요를 모두 승낙한다는 공칭왕의 제안, 광서제가 이견 없이 해당 제안을 받아들였던 결정 과정 등을 주로 서술하여 청조의 연약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서양인을 독자로 한 영문판에서는 오히려 외침에 용감하게 반격했던 청군의 전투적 자세, 결사 투쟁을 다짐하는 광서제의 의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침략당한 청조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었다. 무술변법에 대해서도, 독립협회의 언론 자유에 관한 정치적인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언론 개방의 조치를 사례로 고종에게 권유하였고, 또한 독립협회가 탄압된 후에도 무술변법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독립협회 정치 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활용하였다. 황성신문은 조선과의 평등 외교에 관한 변법 조치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자, 광서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무술변법을 말살한 서태후 일파의 정국의 안정 및 온건 개혁책에도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신문의 중국관은 단일적·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다차원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청조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불만·혐오·기대·호감·동정 등 다양한 감정을 표하였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넷째, 독립신문의 영문판과 황성신문의 내용을 추가로 고찰한 것은 무술변법에 대한 조선인의 이해 및 중국관을 더 파악하는 데 또 하나의 참조가 되었다. 우선 영문판의 고찰을 통해 한글판에서 보기 어려운 독립신문

배후의 ‘지역적 이익’을 발견하였고, 또한 청조에 대한 황성신문의 독립적인 논술은 독립협회라는 정치 단체의 주장과 구별되어 당시 조선 사회에 대한 혁신유학자의 이해를 보여줬다. 영문판과 황성신문의 보도를 참조함으로써 표면적인 인식에 집착하지 않고 당시 조선 사회에서 나온 다양한 언론을 파악하여 해당 언론이 제시된 동기를 파고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사료

『독립신문』

『The Independent』(독립신문영문판)

『황성신문』

『매일신문』

『대한협회회보』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대한매일신보』(국한문과 국문판)

『구한국관보』

『조선총독부관보』

『申報』

『強學報』

윤치호 저, 『윤치호일기』, 대한민국문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1973.

뫼텔 원저, 천주교 명동교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뫼텔주교일기』, 서울: 한국교회연구소, 1986-93

주요한, 『安島山全書』, 三中堂, 1963

이승만, 『독립정신』, 정동 출판사, 1980

정교 저, 한국학술진흥재단 편, 『대한계년사』, 소명출판, 2004

김세한 한서남궁역선생기념사업회, 『한서 남궁역 선생의 생애』, 동아출판사, 1960

『秘書院日記』, 서울대 규장각본, 1895년 11월~1905년 2월

국사편찬위원회 편, 『大明律講解』2권 1책, 2018,

국사편찬위원회 편, 『典律通補』3책, 2016

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태황제실록』전 52권, 국사편찬위원회출판,

2005

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권12 第75號, 1898년 11월 8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인조대왕실록』 권 15, 국사편찬위원회출판, 2005

김용구 편, 『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叢書』, 아세아문화사, 1995

閔泳煥 編, 『刑法大全』, 京城: 大韓國法部, 1906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戊戌政變後清政府懲處康梁黨人檔案(上)」, 『歷史檔案』 2, 2018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戊戌政變後清政府懲處康梁黨人檔案(下)」, 『歷史檔案』 3, 2018

北平故宮博物院編 編,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下冊) 권 52 , 文海出版社, 1970

趙爾巽 等編, 『清史稿』·「本紀二十四 德宗本紀二」, 清史館, 1927

胡思敬, 『戊戌履霜錄』, 南昌退廬刻本, 1913

蔡尚思 方行 편, 『譚嗣同全集』, 中華書局, 1981

麥仲華編, 『皇朝經世文新編』卷一, 瑤林書局 刊行, 光緒二十八年本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北京: 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 2017.

大鳥圭介, 『東學黨變亂ノ際韓國保護ニ関スル日清交渉關係一件』一卷, 外務省外交史料館 藏(B08090158100)

Worthington C. Ford , *The Commercial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Far East,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Political and Commercial*,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3 , 1899

## 2. 연구서

김민환,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 파주: 나남출판, 1998

채백, 『독립신문연구』, 서울: 한나래, 2006

신용하, 『독립협회연구——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사상과 운

동』, 일조각, 1976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45권 , 국사편찬위원회, 2002

최경숙, 『황성신문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0

黃彰健, 『戊戌變法史研究』, 上海：上海書店出版社, 2007

茅海建, 『戊戌變法史事考』,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5；

孔祥吉, 『戊戌維新運動新探』, 長沙：湖南人民出版社, 1988；

湯誌鈞, 『戊戌變法史』, 上海：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3

雷家聖, 『失落的真相：晚清戊戌政變史事新探』, 台北：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2016

孔祥吉, 村田雄二郎, 『罕為人知的中日結盟及其他——晚清中日關係史新探』, 成都：巴蜀書社, 2004 ,

張海榮, 『思變與應變：甲午戰後清政府的實政改革 ( 1895 ~ 1899 )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20

徐萬民, 『中韓關係史·近代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6

牟安世, 『義和團抵抗列強瓜分史』, 北京：經濟管理出版社, 1997 ,

范文瀾, 『中國近代史』, 東北書店, 1948

丁晨楠, 『海東五百年—朝鮮王朝 ( 1392—1910 ) 興衰史』, 桂林：漓江出版社, 2021

노엘 카프레르, 鄭若麟 역, 『謠言——世界最古老的傳媒』, 上海：上海人民出版社, 2008

Paul Joseph Cohen, *History in Three Keys: The Boxers as Event, Experience, and My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Urs Matthias Zachmann , *China and Japan in the Late Meiji Period China policy and the Japanese discourse on national identity, 1895-1904* , New York : Routledge , 2009

### 3. 연구논문

오영섭, 「甲午更張 中 高宗의 王權恢復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 노대환, 「19세기 후반 申箕善의 현실 인식과 사상적 변화」, 『동국사학』 53, 2012
- 김원수, 「청일전쟁 및 삼국간섭과 러시아의 조선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36(2), 2015
- 이호재, 「한국인의 대외인식변화」, 『한국정치학회보』10, 1976
- 채백, 「주요 국가에 대한 독립신문의 정치적 입장-논설의 보도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43-1, 1999
- 김수자, 「근대 조선의 ‘탈중화’와 지역 의식의 재구성-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동방학』37, 2017
- 백영서, 「大韓帝國期 韓國言論의 中國 認識」, 『역사학보』153, 1997
- 노관범, 「대한제국기 황성신문의 중국 인식」, 『한국사상사학』45, 2013
- 유재천, 『『독립신문』의 국문판과 영문판 논설 비교분석』, 『언론과 사회』14, 1996
- 김지형, 「독립신문의 대외인식과 이중적 여론 조성-‘한글판’과 ‘영문판’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44, 2008
- 윤상원, 「한국 역사학계의 만보산사건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문화연구』 51, 2016
- 유바다, 「1885년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의 조선 파견과 지위 문제」, 『사총』 92, 2017
- 김동면, 「협회성 활동에 관한 고찰--토론회와 기관지간행을 중심으로」, 『한국학보』25, 1981
- 장경호, 「아관파천 전후(1896~1898) 정치권력 변화와 김홍륙 독차사건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81, 2017
- 김영문, 「장지연의 양계초수용에 관한 연구」, 『중국문학』42, 2004
- 김현우, 「박은식의 양계초 수용에 관한 연구 -박은식의 儒敎求新과 근대성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11, 2013
- 황종원, 「양계초의 유교에 대한 견해가 박은식에게 미친 영향 --유교의 근대화와 종교화 문제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4, 2018

- 김종명, 「甲午更張의 現代行政改革의 評價」, 『연구논문집』 27, 1983
- 최형욱, 「조선의 梁啓超 수용과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문화연구』 45, 2005
- 김현우, 「‘황성신문’의 실학 인식」, 『인문학연구』 52, 2016
- 이소은, 「梁啓超로부터 申采浩로 수용된 사회진화론 인식에 관한 연구——梁啓超의 新民說이 申采浩의 新國民說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학위논문(석사), 2002
- 劉牧琳, 「甲午戰後朝鮮對中國認識的變化——以獨立新聞為中心」, 『當代韓國』 3, 2019
- 李細珠, 「韓國報刊媒體對清末新政的觀察與反應——以皇城新聞與大韓每日申報為例」, 『當代韓國』 3, 2012
- 蔣華誌, 「清末新政新論」, 『樂山師專學報(社科版)』 2, 1990
- 陳向陽, 「90年代清末新政研究述評」, 『近代史研究』 1, 1998
- 貝國梁, 「‘戊戌變法’(教案)」, 『歷史教學問題』 4, 1984
- 李清純, 「略論維新變法失敗的原因」, 『考試周刊』 85, 2017;
- 蔡權, 「在課堂教學中追求真實的歷史敘述——‘以戊戌變法失敗的原因’教學為例」, 『教育科學論壇』 31, 2019
- 張連起, 「戊戌變法’與“清末新政”異同辨析」, 『北方論叢』 2, 1986
- 金文濤, 「論晚清巨野教案」, 『雲南社會主義學院學報』 1, 2013
- 郭雙林, 「“文明等級論”帶著偏見」, 『北京日報』, 2016년 12월 26일
- 葉斌, 「戊戌變法與『維新』名號」, 『文匯報』, 2016년 6월 24일
- 李文海, 「強學會與保國會始末」, 『文史知識』 8, 1983
- 崔誌海, 「美國駐華公使對戊戌變法的觀察」, 『史林』 4, 2018
- 王明偉, 「陸羯南與戊戌變法」, 『史學集刊』 3, 2008
- 王林, 「‘中東戰紀本末’與甲午中日戰爭」,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4, 2009
- 胡天舒, 「內藤湖南中國觀的變與不變」, 『中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3, 2013
- 熊秋良 李玉, 「從三都澳到鼓浪嶼 ——閩浙總督許應騷涉外政務觀考論」,

-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6, 2014
- 李海蓉, 「英國政府對康有為流亡態度之考釋——兼論保皇會的沒落」, 『史林』1, 2019
- 孔祥吉, 「建國以來戊戌變法史研究述評」, 『近代史研究』4, 1985,
- 馬忠文, 「20世紀90年代以來的戊戌變法史研究述評」, 『晚清政治史研究的檢討:問題與前瞻』,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 傅永軍 宋全成, 「戊戌變法與知識分子的現代化使命——‘戊戌變法與中國現代化道路’學術研討會綜述」, 『粵海風』6, 1998
- 茅海建, 「‘公車上書’考證補(一)」, 『近代史研究』3, 2005,
- 茅海建, 「‘公車上書’考證補(二)」, 『近代史研究』4, 2005
- 權赫秀, 「唐紹儀在近代朝鮮十六年活動考述」, 『韓國研究論叢』23, 2009
- 郭衛東, 「再論戊戌政變中袁世凱的告密問題」, 『清史研究』1, 2002
- 茅海建, 「戊戌時期康有為與光緒帝」, 『近代史研究』4, 2021
- 湯誌鈞, 「強學會在維新變法運動中的作用」, 『歷史教學』9, 1964;
- 湯誌鈞, 「上海強學會和強學報」, 『社會科學』3, 1980;
- 朱東安, 「從三份歷史文件看庚子之戰的性質與起因」, 『明清論叢』7, 2006
- 盛邦和, 「19世紀與20世紀之交的日本亞洲主義」, 『歷史研究』3, 2000
- 戚其章, 「近代日本的興亞主義思潮與興亞會」, 『抗日戰爭研究』2, 2008
- 殷敦新, 「對強學會變質的探究」, 『鎮江師專學報』(社會科學版)2, 1991;
- 茅海建 鄭匡民, 「日本政府對於戊戌變法的觀察與反應」, 『歷史研究』3, 2004,
- 邱濤 鄭匡民, 「戊戌政變前的日中結盟活動」, 『近代史研究』1, 2010,
- 崔惠善, 「大韓帝國時期(1897-1910)傳入朝鮮的梁啟超著作」, 『或問』28, 2015
- 寧秀艷, 『十九世紀末中朝兩國民權思想比較研究——以戊戌維新運動與獨立協會活動為中心』, 延邊大學 學位論文(碩士), 2006
- Felber 著 李士勛 譯, 「德國人對戊戌變法的一些較早的反映和認識」,

錢伯城 李國章 編, 『中華文史論叢(第58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 *Russia's ambivalent response to the Boxers*, *Cahiers du Monde russe* 41/1, 2000

Judith Fröhlich, *Pictures of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War in History* Vol 1. 21(2), 2014

Rolf-Harald Wippich, *Review of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by S. C. M. Paine*, *Monumenta Nipponica* 59(2), 2004

Rudolf G. Wagner, "Dividing up the [Chinese] Melon, *guafen* 瓜分": *The Fate of a Transcultural Metaphor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Myth*, *Transcultural Studies* Vol , 8 No.1, 2017.

#### 4. 사전

역사위원회, 『한국감리교인물사전』, 기독교대한감리회, 2002

운평어문연구소 편, 『(DESK)日韓辭典 Japanese-Korean Dictionary』, 서울: 금성출판사, 1997

시사영어사 사전편찬실 편, 『(Sisa)Elite 일한사전 Sisa Elite Japanese-Korean dictionary』, 서울: 시사영어사, 1996

大同文化社 辭典編纂部 編, 『(大同版)日韓大辭典』, 서울: 大同文化社, 1994

羅竹風 編, 『漢語大詞典』全 13冊,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2

中文摘要

# 甲午战后朝鲜人对华认知

——基于对戊戌变法相关报道之考察

蔡子文

东洋史学科

首尔大学 大学院

本文旨在通过分析大韩帝国时期报刊《独立新闻》、《皇城新闻》中戊戌变法的相关报道，考察甲午战后朝鲜人对戊戌变法的评价及其对华认知。

自1998年以来，戊戌变法的相关研究即呈现出扩大化运用海外史料之特点。然现存研究所运用之海外史料，多集中于各列强国的政府文书、外交官报告及社会精英言论，而缺少对于列强国以外的、他国相关史料的挖掘。基于此种研究现状，本文欲通过对大韩帝国时期报刊中戊戌变法相关报道的分析，提供新的研究思路。进一步地，由于当时报刊对戊戌变法的评价，亦可反映并影响当时朝鲜人的对华认知。故在考察当时报刊中戊戌变法相关报道的基础上，自然可更深入地探讨，戊戌变法期间，即甲午战争之后，朝鲜人对华认知的内容及其变化。

基于上述思路，本文结合对朝鲜国内独立协会运动开展过程之考察，整理分析了《独立新闻》、《皇城新闻》中戊戌变法的相关报道；并将此相关报道，与德国、日本报刊中戊戌变法的相关报道进行了对比研究。研究发现，朝鲜报刊媒体乃创刊团体利益、朝鲜国家民族利益，东亚利益三大利益之复合承载体。且在报道戊戌变法的过程中，报刊的舆论影响力亦促发了朝鲜人对华认知内容的不断变化。进一步地，朝鲜人对华认知内容之变化，亦深刻影响了后来朝鲜的对华政策。

总体来说，戊戌政变前后，《独立新闻》、《皇城新闻》曾一度大量登载有关光绪帝生死废立、列强借机干涉清朝内政等话题的谣言。本文依据卡普费雷所提出的“谣言理论”，推测当时朝鲜报刊大量登载谣言的行为，极可能是意欲向朝鲜社会提示危险信息：列强在借机干涉清朝内政后，亦可能在朝鲜独立协会运动之际，趁机干涉朝鲜内政。而后，随着清朝政局逐渐恢复稳定，朝鲜报刊则始对戊戌变法进行全面回顾，其中亦不乏“若清朝再度举行变法，即可实现文明富强”之祈盼。可以看到，不同于极力维护、扩大其本国在华利益，主张干涉清朝内政之日本报刊、德国报刊，朝鲜报刊在试图引导舆论，以此维护其创刊团体之政治利益的同时，亦兼顾了朝鲜国家民族利益，乃至东亚利益。此外，随着独立协会政治运动的开展，《独立新闻》呈现出的“褒维新，贬保守”之立场、《皇城新闻》依据实学精神而对慈禧太后之政治举措所给出的较为客观的评价，以及两大新闻对戊戌变法所展现之同情、好感及认同等，则分别体现了当时朝鲜人对华认知的不同侧面。

关键词：戊戌变法，戊戌政变，独立新闻，皇城新闻，对华认知

学号：2018-20287